

2025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 행사 기록집

제주 마을 자원 아카이빙 Archiving 전략과 협력 방안

제주학연구센터 편



제주학연구센터
Center for Jeju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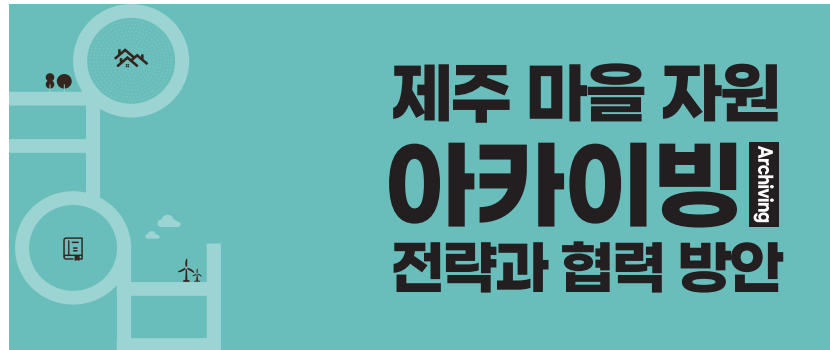
《2025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 행사 기록집》은 2025년 11월 4일 개최되었던 포럼 전 과정을 기록하여 담은 것입니다. 이 기록집은 포럼 현장에서 녹취한 자료를 그대로 한글로 전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표 자료, 사진 자료 등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집은 포럼 현장의 발화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편집 과정에서 사회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발화 가운데 발화 오류나 문장 이해를 저해하는 부분 등 원문의 맥락과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발간에 필요한 동의를 받지 못한 내용 등에 한하여 최소 범위에서 수정 또는 삭제하였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차례

| | |
|----------------------|-----|
| Ⅰ. 포럼 개요 | 5 |
| Ⅱ. 포럼 기록 | 9 |
| 1. 개회식 | 11 |
| 2. 제1부 도외 지역 사례 발표 | 17 |
| • 성북마을아카이브 | 18 |
| • 공주학아카이브 | 46 |
| 3. 제2부 종합 토론 | 63 |
| • 마을 자원 개념 | 66 |
| • 과거와 현재의 변화상 | 73 |
| • 기록 주체의 변화상 | 77 |
| • 마을 자원 기록 방법 | 81 |
| • 마을 자원 디지털화 방법 | 85 |
| • 자료 관리 및 활용 방안 | 94 |
| • 아카이빙 협력 방안 | 101 |
| • 제주형 아카이빙 발전을 위한 과제 | 108 |
| Ⅲ. 기타 자료 | 121 |
| 1. 키워드로 보는 포럼 | 123 |
| 2. 홍보 자료 | 131 |
| 3. 행사 사진 | 135 |

I. 포럼 개요



1. 행사명: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

2. 행사 기간: 2025년 11월 4일(화) 13:30

3. 행사 목적과 필요성

- 제주 지역 마을의 문화·역사·자연 자원을 효과적으로 수집·정리·보존·공유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 필요
- 도외 지역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제주도 내 학계·민간·공공기관 등 여러 기록 주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록 활동을 공유하는 장이 필요
- 제주 지역에 맞는 마을 자원 아카이빙 모델을 수립하고, 여러 기록 주체들이 협업 가능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계기 마련

4. 행사 내용

- 주제: 제주 마을 자원의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
- 일시: 2025년 11월 4일(화) 13:30
- 장소: 오션스위츠 제주호텔 2층 체리홀
- 내용: 도외 지역 사례 발표 및 종합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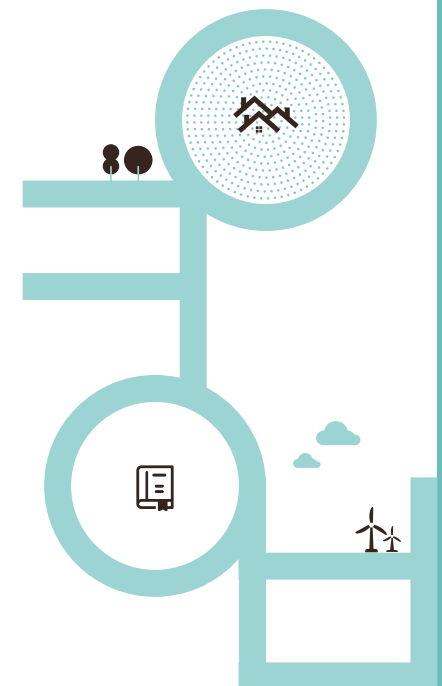
5. 일정표

| 구분 | 시간 | 내용 |
|-------|-------------|--|
| 등록 | 13:30~14:00 | 등록 |
| 개회식 | 14:00~14:10 | 인사말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장) 사회: 강수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 포럼 1부 | 14:10~14:40 | 도외 지역 사례 발표 1 발표: 장지희 (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팀장) |
| | 14:40~15:10 | 도외 지역 사례 발표 2 발표: 이아름 (공주학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 휴식 | 15:10~15:20 | |
| 포럼 2부 | 15:20~18:00 | 좌장: 정광중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강만익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양승현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팀장) 우승현 (서귀포시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활동가) 황이새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II. 포럼 기록

제주 마을 자원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

1. 개회식



사회

강수경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2025년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강수경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제주 마을 자원의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입니다. 본 포럼은 마을 자원의 체계적인 기록과 수집에서부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그리고 효과적인 제공에 이르기까지 고도화된 아카이브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현장 경험과 깊은 실무 지식을 갖추신 전문가분들을 모신 만큼, 오늘 이 자리가 다양하고 생산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의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회식과 기념 촬영을 진행한 뒤 이어서 사례 발표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포럼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는 분들께서는 앞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 4·3 영령을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포럼 발표를 위해 멀리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문화원의 장지희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국립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의 이아름 전문연구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은 제주대학교 정광중 명예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미처 도착하지 못하신 두 분이 있어서 두 분을 제외하고 자리에 계신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문화원 백종진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우승현 활동가님 참석하셨습니다.

황이새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김미진 전문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당초 토론을 맡기로 하셨던 제주학연구센터 현혜림 전문연구위원님께서 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학연구센터 김완병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장님의 환영 및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말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네, 반갑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장 김완병입니다.

멀리 서울에서, 공주에서 오신 장지희 팀장님과 이아름 팀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세미나를 함에 앞서서 아직 도착 안 하신 분이 계시지만, 제주학연구센터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늘 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마을 자원에 대해서 아카이브하는 데 상당히 공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 또 한 사람의 사진, 한 마을의 공간들이 마을의 역사를 만들고, 특히 우리 지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런 자리를 정말 어떻게 실질적으로 공유화시키고 또 활성화를 시킬까 고민의 시작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특히 성북마을아카이브나 공주학연구원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를 간략히 봤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제주학연구센터 활용 사례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정광중 교수님께서서는 인문지리학자로서, 제주대학교 부총장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초대 회장님, 제주학회 회장님도 역임하셨고. 최근에는 《제주 산책》, 《제주 콘서트》라는 제주학총서를 집필하시면서 마을 자원에 대해서 상당히 역설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주 마을의 해안 마을하고 중산간 마을을 비교 연구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좌장까지 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옆에 우리 백종진 사무국장님은 제주문화원을 이끌면서 여러 마을지를 혁신적으로 이끌어냈고.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의 입도조 사업을 비롯해 역사 자원을 아카이빙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강만익 선생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오늘 아스타 호텔에서 제민일보사가 주최하는 국제물포럼에 참석 중입니다. 특히 강만익 선생님은 지역의 인문학자로서 올해는 제민일보사 《제주 물 100년사》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을의 용천수 자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이분 역시 마을 자원의 아카이빙하는 데 제주학연구센터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우리 우승현 활동가님, 그 옆에 센터장님도 와 계십니다. 신승훈 센터장님 잠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지난 상반기 때 제주학연구센터하고 업무 협약(MOU)을 맺고, 특히 저희들이 부족한 서귀포 지역의 마을 자원을 아카이브하는 데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이새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사님께서서는 저와 함께 박물관에서 같이 일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독일 드레스덴민족학박물관 소장 유물을 직접 현지에서 가서 유물 선택에서부터 특별전 계획까지 하고, 제주 마을 자원 특히 민속 자원의 백년사를 집대성하는 데 헌신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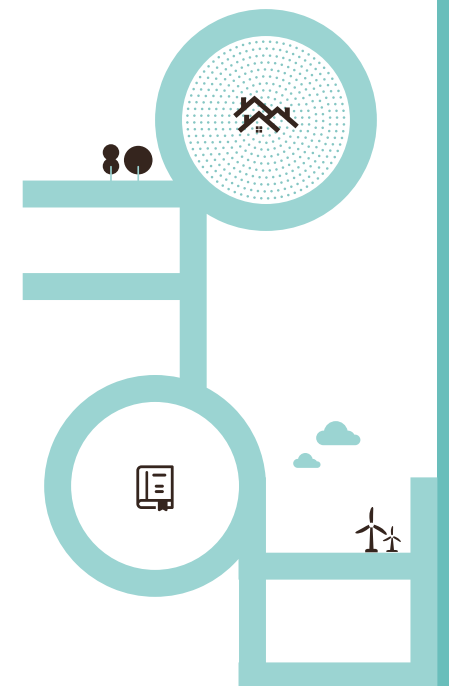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면 제주학연구센터는 아카이빙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특히 전문가들과 협업하면서, 우리 제주학 아카이브가 접근성이라든가 활용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선진화되는 데 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수경 사회자

고맙습니다. 센터장님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칠
겠습니다. 이어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은 앞으로 나오서
서 기념 촬영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마을 자원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

2. 제1부 도외 지역 사례 발표



주민의 삶과 도시의 기록 저장소, 성북마을아카이브

장지희(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팀장)



강수경 진행자

지금부터 제1부 도외 지역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지희 팀장님께서 성북마을의 아카이브 사례에 대하여 발표하시겠습니다. 장지희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지희 발표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성북문화원 장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목 차

1. 성북문화원 소개
2. 성북마을아카이브의 시작
3.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
4. 아카이브 기록의 활용
5. 문화원 기록 사업 및 기록 네트워크 확장
6. 아카이브 현황과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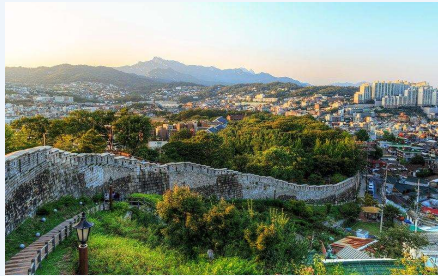
이렇게 포럼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덕분에 저는 어제 먼저 와서 바다도 구경하고 좀 즐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아카이브를 너무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도움이 될 말이 있을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 아카이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성북문화원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고요. 저희 아카이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축되고 운영돼왔는지 그리고 아카이브 기록들을 활용해서 어떤 콘텐츠들을 만들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의 계획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이 있는 서울 성북구 사진입니다. 여러 가지 전경 사진 중에 그나마 제일 예뻐 보이는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여기는 성북동이고 한양도성 바로 앞에 있는 동네라서 이렇게 성곽이 같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저희 성북구는 이름 그대로 성의 바로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 밖에 한적한 마

성북구를 소개합니다



성 밖 한적한 마을이 서울 한복판의 시가지가 된 곳

을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 시가지가 된 지역입니다.

저희 성북구에는 여러 문화유산들과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간송미술관이나 심우장처럼 역사 인물과 관련된 장소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한옥 밀집 지역이나 오래된 사찰 그리고 조선왕릉 등 문화유산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이야기가 풍부한 도시



간송미술관



심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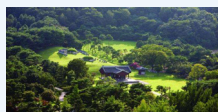
보문동 한옥밀집지역



최순우 옛집



길상사



의릉

성북문화원 소개

1996년,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문화사업 수행 기관

- 문화강좌 운영
- 지역행사 주최, 주관
- 지역문화자원 수집 및 보존



성북문화원 건물 사진입니다.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건물이 오래되고 아담한 그런 곳인데요. 저희는 1996년에 설립이 되었고 지역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설립 목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목적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지역학 자료 포함)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1항

(2017년 11월 28일 신설 조항)

제8조의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 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주요 사업 및 역할



주요 사업입니다. 일단 '지역 문화 계승 사업'으로는 문화 강좌나 시민 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구를 통해서 성북학학술회의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이 진행하는 마을기록화 사업도 계승 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나 이육사 선생님 등 저희 지역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을 기리기 위한 행사도 하고 있는데요. 문화 제나 예술제 그리고 제사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모 사업이나 기타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고요. 지역의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모두 다 같을 것 같은데, 저희는 성북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성북학 자료를 집대성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아카이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카이브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요. 저희 아카이브 팀이 생기기 전에 성북문화원 성북학연구 팀에서 지역 연구 자료를 계속 연구하고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진 지역 관련 기록들을 한곳에 모으자는 요구가 있었고요. 이 시기에 여러 매체나 콘텐츠에서 지역 문화 자원이나 역사와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일반 시민분들이나 그런 분들께서 이런 자료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카이브 사업이 출발하게 됐

성북 기록의 첫 걸음



고요. 저희는 마을 기록을 일단 연속적으로 보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그냥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북학연구를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주민분들과 함께하는 기록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 기록들을 큐레이션하고 콘텐츠로 다시 만들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

❖ 사 업 명: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

❖ 사업 기간: 2018.01.~ , **성북구청·성북문화원 협치 사업**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 시작

(1단계: 2018) 시범사업 → (2단계: 2019-2020) 사업지역의 확장 → (3단계: 2021-2022) 사업의 정착·심화

→ (4단계: 2023~) **성북마을아카이브 V2.0진행**

사업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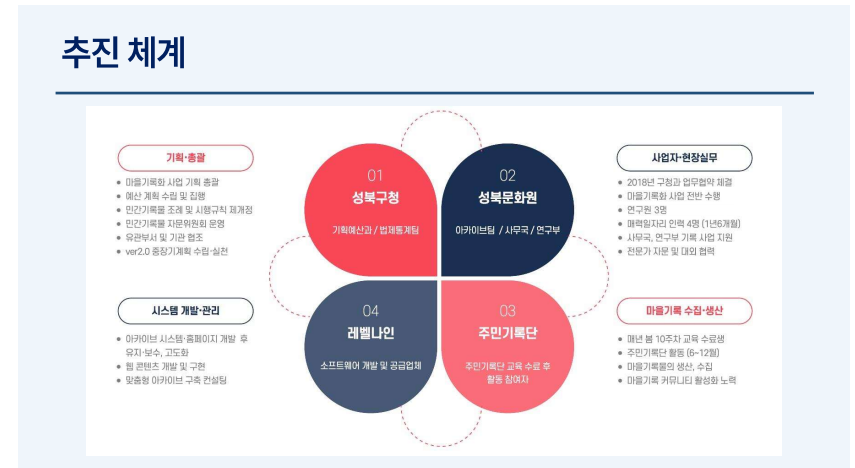


성북아카이브 사업은 2018년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의 협치 사업으로 업무 협약(MOU)을 맺고 지금까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해에는 아까 사진 보여드렸던 성북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 1년 정도 기록들을 정리하고 수집하는 일들을 진행했구요. 그와 동시에 저희 아카이브만의 표준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점점 성북구 전 지역으로 사업 지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민기록단 교육과 활동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기록이 어느 정도 모인 후에는 그 기록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들을 진행했구요. 그 이후로도 전시나 공모전이나 책자 발간이나 영상 제작 등 사업을 계속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추진체계인데요. 일단 성북구청 기획예산과에서는 총괄·기획 역할을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나 조례와 같이 행정적인 부분들을 담당해 주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아주고 있습니다.

추진 체계



제가 속한 성북문화원 아카이브 팀은 현장 실무자로서 2018년 첫 사업 시작부터 지금까지 구축과 운영을 맡아 오고 있는데요. 저희 팀원은 저를 포함한 연구원 3명이 있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 일자리 사업인 '매력 일자리 사업'으로 네분의 선생님께서 채용돼서 함께 아카이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기록단 분들도 각자 맡은 역할을 소화하면서 기록 활동을 열심히 해주고, 그 기록들을 저희 아카이브에 다 보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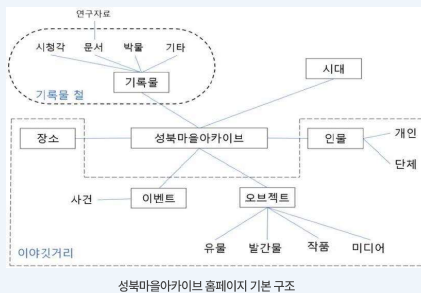
성북학 연구자료 분석



마지막으로 저희 아카이브 구축 개발부터 유지보수, 고도화까지 함께해 주고 있는 레벨 나인이라는 개발 업체가 있는데요. 이곳과도 지금까지 같이 아카이브 사업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카이브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자료들로 처음에 기초 자료들을 수집하고 보존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카이브 팀이 생기기 전부터 성북학연구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동별로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을 연구하고 현장 조사, 자료 조사 등 그런 작업을 통해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사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미 연구되어 있던 발간 도서들이나 여러 자료를 가지고 기초 아카이브 자료 수집과 정리를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분류체계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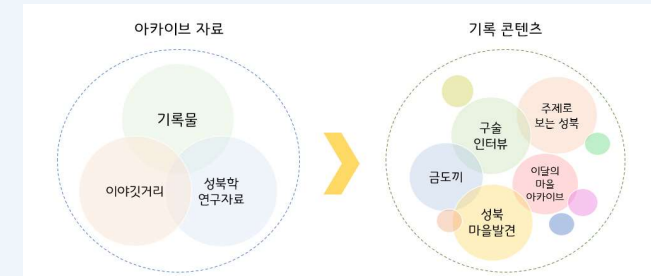


디지털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 간 연결 강화 목표
지역문화자원은 장소, 이벤트, 인물, 오브젝트로 분류
관련 기록물은 시청각, 문서, 박물관 구분

그와 동시에 저희 아카이브 분류체계를 개발했는데요. 저희는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보니까 디지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자원 간에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려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문화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야깃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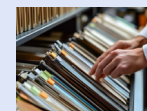
아카이브 내용 분류



라고 하는데요. ‘이야깃거리’는 크게 장소, 사건, 오브젝트, 인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야깃거리’와 관련된 기록물을 시청각, 문서, 박물관 등 이런 유형들의 기록물들을 또 추가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이브의 자료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이야깃거리’, 기록물, 성북학 연구 자료 크게 세 가지가 아카이브 기초 자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축 과정

자체 개발한 마을기록 표준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자료속적 및 개발 기록물 간의 연결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성북구 문화자원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전략을 고려



기록물 분류

- 성북구 지역문화자원의 고유성과
- 특수성을 감안한 분류체계 고안
- 1년 6개월간 도서, 전산자료,
사진, 영상 등을 망라한 지역 자료
정리 및 디지털화



관리시스템 개발

- 기록자원을 이야기거리/기록물로
구분하여 제시
- 구술기록, 주민기록단 활동을 발
도의 매뉴얼 구성
- 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지
침 작성(매년 업데이트)



홈페이지 오픈

- 2020년 1월 공식 서비스 개시
- 아카이브 자료와 활용 콘텐츠를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메뉴 구성



1차 고도화

- 관리시스템, 자료 검색 사용자
불편 사항 개선
- 금도끼, 기록물, 연구자료 등
메뉴 신설하여 유래성 기능 강화



BI 개발

- 2025년, 성북마을아카이브 사업
정체성을 담은 BI 제작
- 아카이브가 지역의 이야기와 기록
이 서로 연결되는 공간임을 상징

저희 아카이브 구축 과정을 간략하게 또다시 이제 보여드리자면, 처음 1년 6개월 정도는 성북학 연구 자료나 전자 자료, 사진, 영상 등 저희가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정리 분류하고 분류체계를 잡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이런 작업을 진행했구요.

그 이후에는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관리 시스템 페이지를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전에는 엑셀에다가 저희가 자료 정리를 다 해놨었는데, 그거를 시스템으로 그 대로 옮겨서 저희가 좀 편리하게 아카이브에서 어떤 자료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지 연구를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카이브 홈페이지는 2020년 1월에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구요. 그 이후에는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아카이브 자료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콘텐츠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메뉴를 홈페이지에 추가하는 등 고도화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저희 아카이브 로고인데요. 올해 저희가 이거를 제작했는데 원래는 공식 로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북마을아카이브'라고 그냥 고딕체로 상단에 썼었는데 저희를 상징하는, 표현하는 로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개발하게 됐고. 좀 설명드리자면 일단 가운데 노란색 부분은 연결을 의미하는 아이콘을 형상화했구요. 곁에 초록색 부분은 파일철 형태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카이브는 기록들을 연결하고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았고요. 또 다르게 보면 노란색 부분은 이니셜 S를, 곁에는 B를 형상화해서 성북의 이니셜 SB를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성북마을아카이브는 기록물을 수집할 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하거나 저희가



직접 촬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했습니다. 밑에 보이는 지역의 전경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지역,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곳을 촬영하는 것은 현재 지금의 모습을 남기는 거 등 연구원들이 거의 진행했구요. 그 밖에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료들은 협력을 구해서,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구술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보자를 섭외해서 직접 진행했는데, 주로 지역에 오래 살고 계신 토박이 선생님들을 만나서 지역의 변화상에 대한 얘기를 듣기도 했구요.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분들이나 아니면 무형유산 인간문화재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인터뷰하고, 저희가 편집해서 아카이브 홈페이지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도 및 지원

'마을기록 아카이브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협치 아카이빙 모델의 첫발을 내딛었으며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기록물의 수집, 공표 및 전시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기반이 되는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 공표



업무협약

- 2018년 성북구-성북마을 '마을 기록 아카이브'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민간협치 모델을 통한 마을기록화 사업 협력, 지원 근거 마련



기록물 조례 제정

- 2020년 12월 마을기록화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기록물 수집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 <성북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공표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

- 기록물 수집계획의 적합성 검토
- 특정 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
- 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 논의



성북마을기록공간

- 2024년 성북마을기록센터 내 4층에 개관(20여평)
- 수장고 및 사무공간 배치
- 기록물 보관 및 목록화 작업 수행
- 주민기록단 활동 지원

그다음에는 제도와 지원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에 저희 성북문화원과 성북구가 업무 협약(MOU)을 맺어서 민간 협치 모델을 통한 마을 기록화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됐구요. 그 이후에는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기록물 자문위원회를 구성했구요. 기록물을 수집하

거나 관리할 때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거나 기록물을 기증받거나 했을 때 가치 평가하는 업무들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작년 여름에 수장고 공간이 생겼어요. 원래는 저희 디지털 아카이브가 위주였고 오프라인 수장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증받거나 해도 기록물을 잘 보존해야 하는데, 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노력하고 시도한 끝에 작년에 주민 공동이용시설 건물 한 층에 수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이랑 수장고 공간을 합쳐서 한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작은 공간이긴 한데요. 일단 여기서 기록물을 정리하고 목록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기록단

성북구 주민들을 인터뷰하여 주민들의 기억과 삶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변해가는 성북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기록하는 성북의 '역사 기지단'

| | | | | |
|---|---|---|---|---|
|  <p>주민기록단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주민기록단 양성교육 시작 (매년 10주차 교육) - 구술기록 및 지역조사 전반에 관하여 실습 과정 수업을 통한 교육 - 70% 이상 수료시 수료증 발급 후 주민기록단 자격 부여 |  <p>주민기록단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주민기록단 양성교육 수료생이 주축이 되어 기록활동 시작 - 매년 6월부터 10~20명의 기록자들이 지역조사를 수행하고 보고서 작성 및 구술생애사 도서 제작 참여 |  <p>기록활동 보고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기록가 1명당 10건 내외의 보고서를 작성 - 매월 아카이브 홈페이지 등록 - 보고서 간수와 원고, 사진 분량에 따라 소정의 활동비 지급 |  <p>구술생애사 시리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성북구 주민 1~2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 후 녹취록 편집,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발간 - 2020~2024 총 10권 |  <p>커뮤니티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기록단 기록가들과 담당 연구원이 함께하는 모임 (활동 중 지역 식사 및 간담회) - 선배·신참 기록가들 간 지역정보 및 활동 팁 공유 |
|---|---|---|---|---|

다음은 저희 아카이브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기록단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일단 매년 봄경에 교육생 분들을 모집해서 주민기록단 교육을 한 10주 정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받고 실습도 하고, 나중에 수료하게 되면 정식으로 주민기록단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주로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좀 궁금했던 장소를 찾아가서 사진 촬영하고 자료 조사를 진행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그 활동들은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아

카이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보고서를 써주시는데, 사실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아주 약소하긴 하지만 저희가 활동비도 조금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민기록단 선생님들과 함께 '구술생애사 시리즈'라는 책자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 외에도 기록 활동하실 때에는 기록가들이 각자 다 개인 활동을 하시거든요. 하고 싶은 주제도 다 다르고 거의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 기간 동안 한 2~3회 정도 간담회를 열어 서로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기록단 교육



저희 교육 사진인데 보시는 것처럼 저희 코로나 시기에는 줌(Zoom)으로 교육을 진행했고요.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이렇게 강의실에서 하고 직접 인터뷰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책자인데요. 작년까지 10권이 나왔고 올해는 11권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북구 내에 동이 12개의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골고루 동별로 구술자 분들을 섭외해서 그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 균형 있게 섭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셨던 주민기록단 선생님들은 인터뷰 섭외가 들어와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고, 유공 구민 표창을 받으신다든지, 동기부여를 이런 데서 받아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큐레이션

아카이브 기록물과 이야기거리를 활용하여 에세이, 온라인 전시, 영상콘텐츠, 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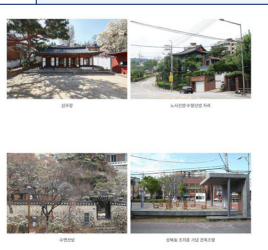
큐레이션_금도끼

[금도끼 #239] 성북 예술인들의 사랑방, 승설암

박영자 기자

자연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고, 곳곳에 아가씨가거린 공간들이 자리하여 여러 사람들이는 안락로운 지평도 마련한 작은 역사·문화공간이 남아 있는 승설암이다. 과거에는 승설암 일출대(승설암) 생활 터전이자 문화·예술·교육 공간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으로, 전라도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존경을 나타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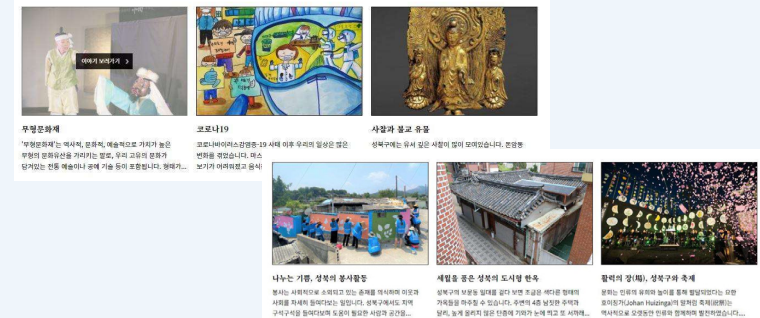
지난 여름 초·심학문화원에서 개최한 전시 <상하>의 예술계 <가계(가계) 반향>의 주인공인 한림 '심우정'은 지금도 복합마을 중에서도 자취를 지니며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또 성북천 일변이자 화가였던 근방 김홍준이 살았던 '노사산방'과 그로부터 삶을 불려받아 화가 김홍준과 <김홍준의 거주했던 '수향산방'에 있던 자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인근에는 소원가 산하 아래 '수향산방'이 여전히 남아 전통정자와 문물하고 있으며, 사진 초지들이 '방우산방'을 같이 푸른 이름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그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록의 활용 부분인데요. 오늘은 크게 한 4가지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글 형식의 에세이 콘텐츠인 '금도끼' 그리고 온라인 전시 형식인 '주제로 보는 성북', 그리고 그 밖의 영상들도 있고, 웹툰도 연재했었습니다.

일단 '금도끼'는 줄임말인데요. 예상이 안 되시죠? 어떤 줄임말인지.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성북의 이야기' 줄임말입니다. 좀 끼워 맞춘 그런 느낌도 있긴 한데, 이름을 지을 때 좀 짧으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짓고 싶어서 '금도끼'라고 했어요. 그 이름처럼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에 하나씩 주제를 선정해서 짧은 글을 작성하고, 관련된 사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50건 정도 누적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와 저희 누리소통망(SNS)에 올리고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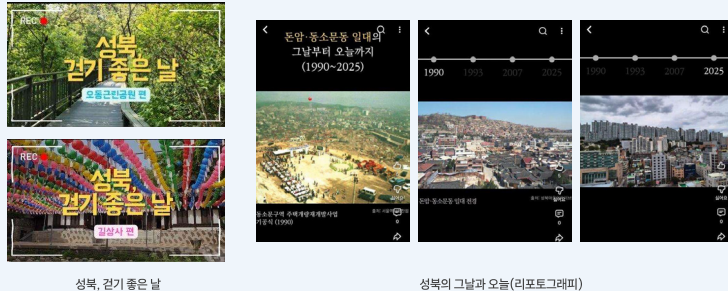
큐레이션_주제로 보는 성북



'주제로 보는 성북'은 저희가 거의 분기별로 올리긴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잡아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저희 '이야기거리'랑 기록물을 한 페이지에서 보게 모아놓는 온라인 전시 콘텐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록 영상 시리즈인데요. 저희가 성북마을아카이브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는 콘텐츠들입니다. 먼저 '성북 걷기 좋은 날'의 경우는 말 그대로 산책하기 좋은 명소, 코스를 소개해드리는 콘텐츠로 저희 연구원 분이 직접 그 길을 산책하면서 촬영하고 편집해서 아카이브에 올렸고요. 이 옆에 있는 '성북의 그날과 오늘'이라는 콘텐츠는 계속 활발하게 올리고 있는데. 리포토그래피(Rephotography) 기법이라고 해서 옛날 사진의 그 장소를 똑같이 찾아가서 최

큐레이션 _ 기록 영상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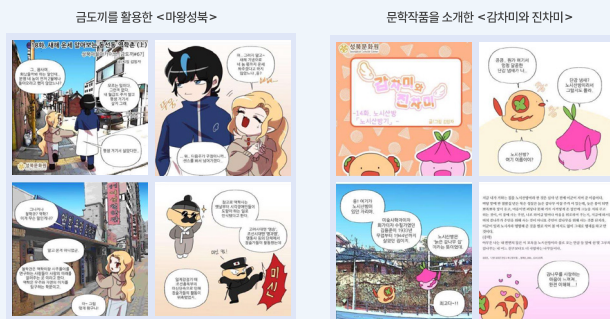
성북, 걷기 좋은 날

성북의 그날과 오늘(리포트그래피)

대한 같은 구조로 사진을 찍어서, 그 지역의 변화상을 좀 빠르게 한눈에 보여드리도록 구성했고. 저희가 유튜브 쇼츠로 올리고 있는데 쇼츠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동안 올렸던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 수가 잘 나오고 있어서 담당하는 선생님이 되게 뿌듯해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웹툰인데요. 이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좀 퀄리티가 있어요. 저희 예전에 애니메이션을 전공하셨던 선생님께서 저희 팀에서 근무하셨었는데, 그때 두

큐레이션 _ 웹툰



편의 웹툰을 연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었고. 하나는 ‘금도끼’ 자료들을 활용해서, 등장인물들이 성북구를 돌아다니면서 소개해주는 ‘마왕 성북’이라는 웹툰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성북구와 관련된 문학 작품을 소개해 드리는 ‘감차미와 진차미’라는 웹툰이 있었습니다. 이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여운데, 이 캐릭터들은 성북구를 상징하는 감나무, 진달래, 참새를 모티브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고 웹툰을 연재했습니다. 이것도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당시에.

다음으로는 모바일 콘텐츠 부분입니다. 모바일 콘텐츠의 경우는 아카이브 기록물과 ‘이야깃거리’를 활용해서 특정한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한 콘텐츠로 GPS 기반으로 한 모바일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성북마을발전+문학’은 연구원들이 성북구와 관련된 작가분들의 작품을 진짜 많이 직접 읽었어요. 읽고 읽다가 성북구 배경이 등장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또 그거를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설들을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서비스하고 있고. 성북구 내에 게시할 때 이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주변에 어떤 장소들이 문학 작품과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장

모바일콘텐츠

아카이브의 기록물, 이야기거리 등을 활용하여 특정한 테마를 중심으로 기획 및 제작한 콘텐츠로, 모바일 기반 서비스 기획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스마트폰의 GPS기능을 활용하여 지역기반 콘텐츠 제공



성북마을발전+문학

- 2019년 하반기 제작
- 성북구 배경으로 하 문학작품을 선별하여 지도상에 표시
- GPS기반으로 이용자의 위치에 따라 근거리 콘텐츠 제시

성북마을발전+독립운동

- 2020년 하반기 제작
- 성북구 독립운동가 기록을 기반으로 독립운동 연표, 인물, 사진, 집터 및 기록자료 연동

성북마을 보물찾기

- 2020년 하반기 제작
- 초등 마을교과서 연계 성북구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 구성 및 설계
- 교육현장 및 개인 기기 활용이 용이하도록 GPS기반 모바일 중심 설계

소와 관련된 어떤 작품들이 있고 어떤 구절들이 있는지 소설과 시에 대해서 보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작한 것이 '성북마을발전+독립운동'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북구와 관련된 독립운동가분들을 조사하고 그분들이 사셨던 집터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집터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다 촬영하고, 그 독립운동가와 집터 그리고 연표, 관련된 사건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마지막 '성북마을 보물찾기'의 경우에는 작년에 만든 콘텐츠인데, 초등학교에서 활용하는 마을 교과서라고, 지역학 교육 자료라고 해서. 마을에 대해서 공부하는 교과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업할 때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는데, 아직 내용이 많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거는 고도화가 조금 더 필요하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성북구와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했고, 학교라는 주제를 잡아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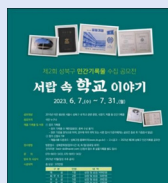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통해 성북의 역사를 증언하는 숨은 기록물을 수집



우리의 기억, 성북의 기록으로

- 응모인원: 37명
- 수집대상: 성북마을기록으로 가치를 지닌 문헌, 사진, 영상, 생활용품 등
- 수집결과: 198건/360점 접수, 10명 시상, 총 57건/105점 기증



서랍 속 학교 이야기

- 응모인원: 30명
- 수집대상: 성북구 내 학교 관련 문헌, 시청각, 박물관 등 민간기록물
- 수집결과: 694점 출품, 15명 시상



성북의 가족과 추억

- 응모인원: 27명
- 수집대상: 성북구와 관련된 개인 및 가족의 이야기나 근현대 생활상이 담긴 자료
- 수집결과: 826점 접수, 18명 시상

마을기록 전시



우리의 기억, 성북의 기록으로

- 기간: 2021.10.29~11.7
- 장소: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 내용: 제1회 민간기록물 공모전 출품작(사진, 영상, 문헌, 생활용품 등)



기록, 성북을 담다

- 기간: 2022.10.29~11.10
- 장소: 성북천 바깥마당
- 내용: 성북의 역사문화, 성북주민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야외 전시



서랍 속 학교이야기

- 기간: 2023.10.31~11.9
- 장소: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 내용: 제2회 민간기록물 공모전 출품작(학교 관련 기록물)



반짝이는 순간들

- 기간: 2024.6.6~6.10
- 장소: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 내용: 성북구 12명의 주민이 출품한 약 50점의 어반스케치 작품



가족, 내 마음속 책갈피

- 기간: 2025.11.6~11.16
- 장소: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 내용: 제3회 민간기록물 공모전 출품작/아카이브 사업 소개 및 성과

그리고 올해는 '가족과 추억'이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했고 지난 9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물을 공모전을 통해서 받으면 전시를 기획해서 열고 있는데요. '성북 마을 기록 전시'는 지금까지 5차례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록물들을 실제로 주민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추억이나 옛날 생각들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기록 전시



저렇게 야외에서 임시 벽을 설치해서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리기도 했고 이렇게 실내 공간에서 진열장 안에 기록물들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자체 기록화 사업

주민 구술 채록, 각종 도서 발간, 아카이브 관련 논문 게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북의 기록을 수집, 정리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 채록

- 기간: 2019.10-12
- 내용: 31운동 100주년 기념 성북구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자료집 발간 (최용덕, 이육사, 나중소, 조소앙, 이은숙, 유우석, 조화벽, 정정화)



디지털생활사 아카이빙

- 기간: 2022.5-12
- 내용: 생활사 기록가 8명 선발 각 2-3명씩 구술자 인터뷰 실시/구술자 26명에 대한 구술자료 작성/영상 기록물 제작



선잠제 구술 채록

- 기간: 2024.6-12
- 내용: 선잠제 및 진잠제 자료 조사 및 기록물과 영상물 수집/선잠제 단체 및 인물 구술채록 작업(국가유산청 미래무형유산 발굴 사업)



도서 발간

- 지방문화원 아카이브 구축 매뉴얼 (2020/한국문화원연합회 위탁)
- 성북으로 쓴 이야기-금도끼 (2024/서울시문화원연합회 지원 사업)



학술 논문

- 성북마을아카이브 주제 논문 학술 회의 발표 및 학술지/단행본 게재 (5건)
- 기타 대학 학위논문에서 성북마을 아카이브 사례 활용 (8건)

성북문화원 마을 아카이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청과 문화원의 협치 사업으로 진행하고 그거 외에도 성북문화원 자체적으로 예전부터 해왔던 기록화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독립운동가분들, 후손분들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진행해서 책자를 발간했던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오래 사신 토박이 분들이나 생활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인터뷰를 진행한 ‘생활사 아카이빙이라는 사업’도 진행했었습니다.

작년에는 국가유산청 사업의 일환으로 ‘선잠제 구술 채록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선잠제에 직접 참여하셨던 제관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을 만나 뵙고 한 다섯 분 정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작성하고 있는《금도끼》책자를 발간하기도 했고, 학술 논문 내용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위 논문 작성하실 때 저희 사례로 해서 작성해주시기 도 하시더라고요.

마을기록 네트워크 확장

관내 기록 주체들과의 협업을 진행하고 마을미디어단체, 대학, 주민단체 및 동아리가 생산한 기록물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구립도서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서비스



마을미디어 네트워크

- 2022년 마을미디어 단체 생산 기록물 아카이브 공유를 위한 협약
- MOU 체결 이후 단체 생산 기록물 매년 100건 이상 수집/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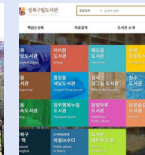
관내 대학 협업

- 한성대 회화과: 그림으로 기록하는 성북(2022-현재)/독립운동가 80인 초상화 전시(2025)
- 한성대 부동산학과-관내 사진 기록물 생산/등록(2021-현재)
- 고려대문과대학: 연암학 프로젝트
- 고려대 HUSS 사업단: LLM



평생학습 동아리 협업

- 2024년 마을기록 전시에서 성북구 평생학습관, 청월2동 주민센터 어반스케치만 협업



도서관 시스템 연계

- 자치구 최초 누리집 간 통합 검색 시스템 도입(성북마을프로젝트)
- 성북마을아카이브와 성북구립도서관 소장 자료의 연계, 순환 시스템



국내/외 단체 교류

- 지방문화원 교류(대여, 인천서구, 이천, 등해)
- 국내 기관 단체 교류(충청, 청주, 남원, 국가기록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기록원, 서울시립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 국외 기관 단체 교류: 홍콩MaD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쨌든 기록물을 수집하고 생산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다른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성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 미디어 단체들과 협업, 업무 협약(MOU)을 맺어서 그분들이 생산하는 영상이나 발간물들을 계속 수집해서 아카이브에 올리고 있고요.

관내 대학 협업

협업 학과별 전공 특색에 맞는 아카이브 프로젝트 진행



광복 80주년 기념 독립운동가 초상화 전시

관내 대학 협업



그리고 관내 대학교 대학생들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 관 내에는 7개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들과 업무 협약(MOU)을 맺기도 하고 특 정 학과들과 계속 기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평 생학습 동아리 주민분들과도 함께 전시를 준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성북구립도서관과 시스템을 연계하는 ‘성북이음프로젝트’라는 프로젝 트를 진행했었는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도서관의 검 색 결과도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도서관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저희 아 카이브 검색 결과도 나올 수 있게 그 결과를 합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내외 단체들, 다른 지방문화원이나 다른 단체들, 기록원, 미술관 박 물관 등등과 교류하면서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학 협업 프로젝트 중에 올해 진행한,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성북구 독립운동가 80인의 초상화 그리기를 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한성대학 교 회화와 학생들과 함께 진행했고, 80인의 독립운동가를 그려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거의 80명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독립운동가분들의 초 상화를 본인의 느낌대로 그림을 그리고 전시도 진행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

성북마을아카이브 현황



렇게 좀 귀여운 그림체로 성북 지역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웹툰을 그리기도 했 고. 또 오래된 가게를 방문해서 사진 촬영하고 그림도 남기고 도면도를 만드는 작업도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아카이브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저희 아 카이브 통계 자료를 조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기록물과 ‘이야깃거리’가 지 금 18,000건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주민기록단 교육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서 115명 정도 수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모전을 통해서 한 1,880건 정도 기록물을 접수받았습니다. 물론 다 기증은 아니고요, 위탁한 기록물도 포함입 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자 수도 아주 큰 숫자는 아니지만 조금씩 그래도 꾸 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분들과 함께 만드는 마을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 기 위해서 좀 노력할 예정이고요.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보관하고 공유할 수 있 는 그런 기록 플랫폼이자, 그리고 공간과 삶의 흔적을 잇는 역사 문화 콘텐츠들 을 많이 만들고, 나와 성북에 필요한 아카이브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

| 목 표 | 주민의 이야기를 보관하고 공유하는 마을기록 플랫폼 | 공간과 삶의 흔적을 잇는 역사문화콘텐츠 | '나'와 '성북'에 필요한 아카이브 | |
|------|--------------------------------------|--------------------------|---------------------------------------|-----------------------------------|
| | 주민과 함께 만드는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의 성장과 확산 | | | |
| 핵심가치 | 연결성 | 유용성 | 심미성 | 지속성 |
| | 나와 이웃, 현재와 과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포털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록문화 인프라 | 기록의 보관과 공유를 위한 직관적이고 통일성 있는 디자인 | 마을기록 수집과 생산을 위한 조직과 시스템 재정비 |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지만, 그중에 조금 일부를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아카이브를 운영할 때 통합적으로 연구자 매뉴얼은 있는 상태인데요. 아카이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을 좀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조례에는 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아카이브 자체에 대한 조항을 조금 더 보충해서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록물을 수집할 때, 단발성으로 계획을 세우고 기록물 수집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이제는 중장기로 수집할 수 있는 주제를 잡아서 좀 더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서 아카이브 기록물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교육 자료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내년에는 개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장고는 작년에 마련이 됐는데, 상설 전시 공간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진행할 때마다 지역 안에 있는 다른 기관에 다른 자리에 대관해서 진행하는데요. 이거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많은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상설 전시 공간과 주민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같이 마련해서

향후 과제

| | | |
|----|---------------------------|--|
| 01 | 운영체계 표준화 및 제도정비 | 통합 아카이브 운영 매뉴얼 마련 / 조례 개정 |
| 02 | 기록물 수집 기반 마련 | 중장기 수집 계획 수립 / 구술기록 비중 확대 |
| 03 | 지속가능한 플랫폼 확대 및 홍보방안 마련 | 중장기 영상 콘텐츠 제작 / 교육자료 개발 / 서버 최신화 및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
| 04 | 기록관 조성 검토 | 상설 전시공간 및 주민 참여 공간 마련 |
| 05 | 마을기록 사업 확장 |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확장 / 장기계획 수립 |

좀 더 아카이브 사업이 주민들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저희는 지속 가능한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수경 진행자

장지희 팀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성북마을 아카이브에 대해 A부터 Z까지 굉장히 밀도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주민과의 협치뿐만 아니라 기관과 그런 마을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 명의 연구원이 이거를 다 한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읍면 지역으로 찾아가는 자료 수집, 공주학아카이브

이아름(공주학연구원 전문연구원)



강수경 진행자

국립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이아름 전문연구원님께서 충남 공주시의 사례를 발표하셨습니다.

이아름 발표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아름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저한테 연락하셨던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가서 의미 있는 얘기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자료수집



공주학
아카이브



를 할 만한 게 있을까요라고 다시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러니 오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왔고요.

다만 제주에 마을들이 있고 그 마을 자원을 아카이빙 하려고 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그냥 사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탬이 좀 되고 가야 할 텐데 어떤 지점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일련의 사업 중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읍면 지역을 찾아가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입니다. 공주시는 10개의 읍면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그곳을 찾아가는 일들이 아무래도 이 포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에 제가 한 꼭지를 빼왔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다 있죠. 저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저희 연구원도 숨 가쁘게 주말 없이 매일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마다 다 사정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 10개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녀오면 다녀온 곳에서 느끼는 바도, 수집하는 자료들도 각각 다릅니다. 그러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국립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공주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2014년 공주시의 지원 아래
국립공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설립



공주학연구원은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립공주대학교, 대학교 안에 이렇게 한옥 건물로 있습니다. 제가 한옥 건물에서 일하다 보니까 한복을 차려입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 안에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공주시에서 지원하고, 공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공주학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고. 이런 특별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저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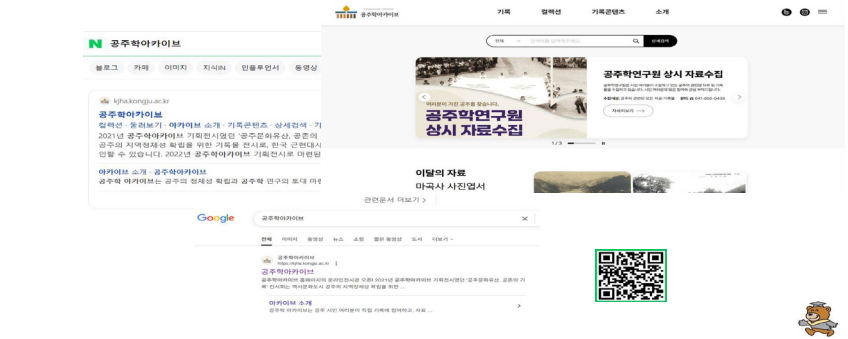
아마 학교에서만 전담하게 된다면 비용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보조금 예산이 그렇게 적지 않고, 1년 예산이 꽤 넉넉하고 그 것으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년의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것들, 학교에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주시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저희가 아마 10년의 세월을 지속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저는 전문연구원이고 문화콘텐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2월부터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서 하셨던 분들이 자료를 많이 수집하셨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올해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저희가 수집하고 등록하는 건수를 약 4천 건을 목표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지속할 수 있었고, 올해도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아마 이 읍면 지역을 찾아가서 자료 수집했던 것도 분명히 역할을 했고. 때문에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읍면 지역에 찾아갔을 때 우리가 무얼 하는지 설명할 때, 저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일부의 내용입니다.

저희는 공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소속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공주학연구원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아카이브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포털에 공주학아카이브라고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

2. 공주학 아카이브



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검색창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관련 자료를 검색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읍면 지역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할 때, 그냥 저희가 어떻고요, 뭘 했고요, 이런 걸 설명하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수집했던 것 중에 이 지역 자료는 뭐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증 혹은 기탁해주신 자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관심을 보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으로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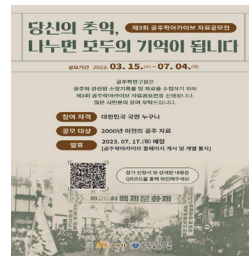
2. 공주학 아카이브



결하기가 좀 쉽습니다.

지금 아카이브 현황 9월 2일 기준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수집한 자료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비스하는 건데, 저희는 도서관행물부터 이렇게 구슬류까지 있는데요. 도서관행물 같은 경우는 옆에 써있는 것처럼 관공서 간행물, 그다음에 공주와 관련된 도서 이런 것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문서류도 있고, 사진류도 있고, 박물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딱 정안면 혹은 마을이라고 검색하시면 카테고리별로 분류되어 있어서 그 카테고리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구분해 놔습니다.

3.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자료수집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때는 그냥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는 이유도 있었지만 이러한 공모전을 했습니다. 저희도 한 3회 정도 공모전을 하면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공모전이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자료 수집의 통로로 삼아보라고 추진했습니다.

읍면 지역에 이장단 회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장단 회의에 찾아가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그때 내용은 다르지만, 아까 공모전을 개최할 때 이런 게 있으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싶다고 설명드리고, 또 공모전이 없을 때는 우리 기관이 어

3.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자료수집



유구읍사무소 홍보 활동 [2023.04.07.]



신동면사무소 홍보 활동 [2023.04.11.]

떤 자료가 지금 수집 대상인지. 근래에는 저희가 하숙과 관련된 것들을 수집하고 있거든요. 하숙과 관련된 사진 또 혹은 구술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런 설명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도에 이렇게 갔다 왔던 거고,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홍보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지만 각 지역의 행정 계시대에 게시하는 것들 많이 있고요.

3.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자료수집



3.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자료수집



정안면사무소 홍보 활동 [2024.08.13.]



반천면사무소 홍보 활동 [2023.09.12.]



그다음에 2024년도처럼 이렇게 해마다 저희가 10개 지역은 무조건 가는 걸로. 올해도 다 갔고 한 지역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보하는데 공주가 꽤 넓어요. 그래서 충남 공주라고 하는 지역이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면적이 넓기 때문에 10개 지역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가 보자, 찾아가서 거기 있는 주민들과 접촉해보자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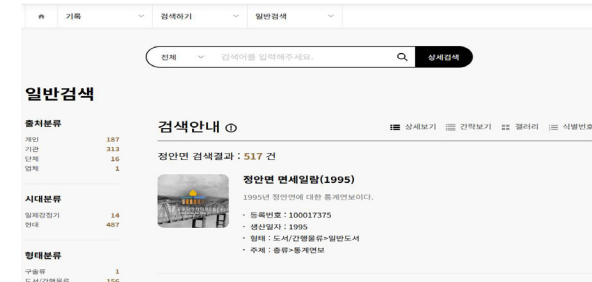
3.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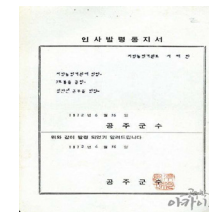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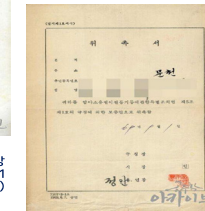
3.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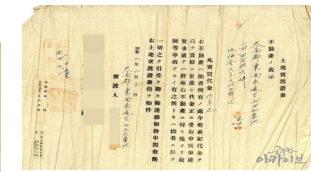
3.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자료수집



1972년 호봉 및 근무지 인사발령통지서
생산일자: 1972.06.16
제공자: 개인 (2019년 기증)



보충 위촉장
생산일자: 1969.09.01
제공자: 개인 (2019년 대여)



1932년 토지매도증서
생산일자: 1932.07.04
제공자: 개인 (2019년 대여)



아까 공모전 이외에도 상시 자료 수집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안면을 갈 때는 정안면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자료들, 이미 기존에 구축해 놓은 자료들이 어떻게 구축돼 있다, 무엇이 있다는 것들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합니다.



3.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자료수집



국립제주대학교



근래에 정안면을 갔다 왔기 때문에 정안면에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있다, 사진도 이렇게 있다 설명하면. 어떻게 보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이거 우리 집에도 이런 사진이 있는데, 우리 집에도 이런 문서 있는데라고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기증해도 되냐고 저희한테 또 되묻기도 하시고. 또 이장단 회의에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포스터를 나누어 드리면 각 면이나 이(里)에 가서서 홍보해주십니다.

3.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자료수집



의암면사무소 홍보 활동 [2025.08.14.]

신동면사무소 홍보 활동 [2025.09.09.]

국립제주대학교



3.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자료수집



정안면사무소 홍보 활동 [2025.10.14.]

유구읍사무소 홍보 활동 [2025.09.15.]

국립제주대학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의 운영 형태 중에 저는 관계성과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 활동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의당면사무소에 저희가 홍보하려고 했더니, 새마을회에서 그날 뭔가 작업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작업 장소까지 가서 저희가 설명하는 하나의 이슈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면사무소에서 이장 회의하기에 앞서서 저희에게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홍보하고 그러합니다.

3. 읍·면지역으로 찾아가는 자료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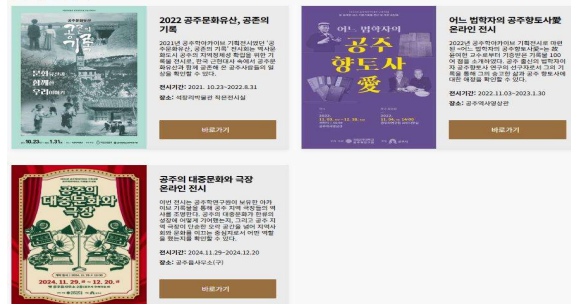
이야기 가게 운영, 제민천 여행자 센터 [2025.10.27~11.02.]

국립제주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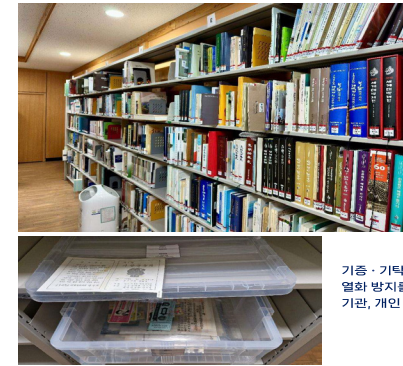


저번 주 그리고 주말까지 이어서 저희가 ‘이야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이야기 가게’는 공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제민천이라고 하는 장소에 여행자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공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말씀해 주시거나 혹시 기록물을 가지고 오시면 영상이나 녹취하고. 그다음에 기록물 수집을 하는 등 일주일 동안 꽤 많은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한 서른 분 넘게 다녀가셨고, 이것이 좀 괜찮아서 어제까지도 계속 저희 공주학연구원을 방문하셔서 자료들을 기증하고 위탁하셨습니다.

온라인 전시



이렇게 저희들이 모은 것들을 일 년에 한 번씩 전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 번의 전시를, 전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시 기록과 관련된 VR 영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홈페이지 말씀드렸는데, 그곳에 올려놔서 여기 들어가시면 그날의 전시를 어떻게 했는지 다 볼 수 있도록, 올해 전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공간에서 전시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와서 보실 수도 있고 하나의 기록물로 남겨놓으려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자료에 대한 일련번호 부여 및 목록화
열화 방지를 위한 보존조치(보호필름, 중성지 등)
기관, 개인 등 자료열람 요청에 따른 자료열람 서비스



아까 성북문화원도 수장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문서고가 있습니다. 항온 항습기도 다 있고 그래서 저희 공간은 저희에게 기증해주신 자료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이란 시간 동안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지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제 준비하시거나 시작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도서는 도서대로 분류해서 놓고요. 그다음에 자료나 사진은 또 사진대로 열화 방지를 위한 여러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집하는 것 중에 사진 자료가 가장 많습니다. 아마 다른 곳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진 자료는 읍면 지역으로 주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10개의 읍면 지역대로 분류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 년에 하는 활동 중에 읍면 지역에 찾아가서 하는 활동들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 저희 홈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많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제가 답

변할 수도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궁금하시거나 또 관심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금 양해를 드리고자 한다면 제가 멀리서 왔는데 오늘 토론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금 일찍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궁금하시거나 공주학연구원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강만익 질문자

마을에 있는 문서를 조사하신 적도 있죠?

이아름 발표자

네, 근데 어떤 특정 마을의 문서를 다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개개인이 갖고 있는 문서들을 개별적으로 저희가 수집을 하는데, 수집은 개별적으로 하지만 홍보는 마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강만익 질문자

마을 자체가 소장하고 있는 그런 자료는 있나요?

이아름 발표자

마을이 갖고 있는 걸 수집한 적은 없고, 학교가 가지고 있는 거를 수집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100년이 넘는 초등학교들이 꽤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증해 주시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에게 연락하셨던, 이 포럼을 준비하신 분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고 공주학연구원이 마을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꽤 활발히 하신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이유가 아무래도 학교 예전 자료들을 보시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강만익 질문자

자료를 기증을 받으면 뭔가 주는 게 있습니까?

이아름 발표자

저희에게 자료를 기증해주셨을 때 저희가 금전적 대가를 드리는 경우는 공모전이 아니고, 이번에 일주일 '이야기 가게'를 운영했을 때 저희가 소정의 상품권을 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이건 되게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기회는, 저희가 저번 주에 했던 그 기간에는 연구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협업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증, 기탁은 자유 의지이고 금전적인 비용은 없지만, 저희에게 기증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감사패를 드린 다거나 이런 건 하지만 비용을 드렸던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4천 건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고서는 지속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정광중 질문자

제가 하나 좀 여쭙볼게요. 공주대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이 있습니까?

이아름 발표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공주시에서 보조금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광중 질문자

매년 4천 건 이상 수집하시는데 전부 수집해서 어디다 보관합니까? 아까 보관함? 4천 권이라는 게, 지금 하신 지 꽤 오래됐죠? 양이 많을 텐데.

이아름 발표자

도서류의 경우 올해 수집 건수가 500건 정도 됩니다. 나머지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사진이고요. 사진은 디지털화시켜서 저희가 웹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보관의 어려움은 아직 없습니다.

정광중 **질문자**

그 자료 중에 유형적인 자료. 예를 들어서 큰 돌로 된 비석이라든지 아니면 흉상이라든지 건물 지으면서 없애버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유형의 부피가 큰 그런 자료들은 없습니까?

이아름 **발표자**

다행인지 불행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비석은 아직 없고요. 다만 갖고 있는 것 중에 박물관에서 감사패, 상장 이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이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지 이외에 공주대학교에 또 다른 캠퍼스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한 공간을 저희한테 좀 빌려줘서 그곳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은 아직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정광중 **질문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지부는 굉장히 유명 인사나 역사 속에 등장했던 후손들 장본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과 관련된 기록물도 많지만 30년 전에 60년 전에 100년 전에 세웠던 흉상, 비석 이런 것들이 새로 건립하게 되면 땅속에 다 파서 묻어버리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땅속에 묻히지 말고 일정한 보관 장소에다가 보관하면 후세들한테 교육 자료가 됐든 아니면 나중에 그걸 전시 자료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록물 따로 만들어서, 책자로 발간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인물이든 사건, 장소든 관련해서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작업들은 안 하시는가 궁금해서 다시 여쭙본 겁니다. 그러려면 엄청나게 보관하는 저장 공간도 좀 커야 하고, 또 대학에서 지원을 좀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한번 여쭙보고.

이아름 **발표자**

네, 아마도 박물관도 있고 하나까 그런 쪽하고 더 많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는 대부분 민간기록물을 위주로 수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그런 규모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또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주학연구원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 지역을 연구하는 시민들의 모임인 공주향토문화연구회가 있는데,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에 많은 애정을 갖고 참여해주십니다. 이번에 ‘이야기 가게’를 운영할 때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역학 아카이빙은 지역 주민들과의 연대가 꽤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 이런 기회들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공주학에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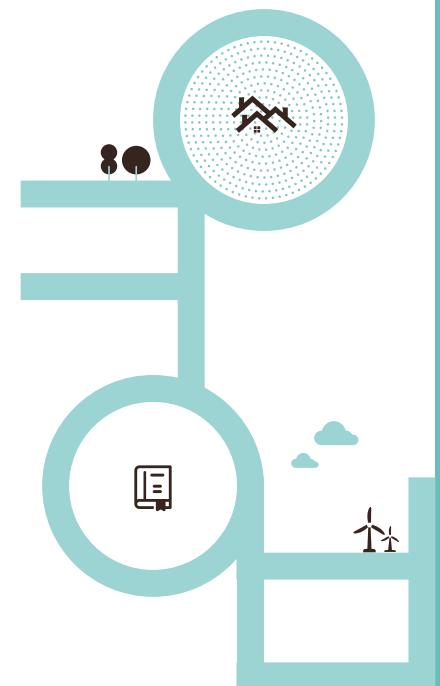
강수경 **사회자**

고맙습니다. 저도 민속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현장을 사실 많이 다니기도 하는데요. 10개 지역을 소외됨이 없이 매해마다 고르게, 균형 있게 찾아가서 하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 후 제2부 자유 토론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제주 마을 자원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

3. 제2부 종합 토론



토론자 소개

정광중 **좌장**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오늘은 토론 시간이 넉넉하거든요. 사회자가 아주 서두를 일이 없어요. 보통 학술대회에는 한 50분 주고 한 10명 토론시켜라 이러는데 오늘 시간은 넉넉해서 아주 신납니다.

먼저 강만익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계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지역 사회에서 목축문화의 대가이고 그 외에도 독립운동사, 생활사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입니다.

제주도 비석으로 박사 학위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문화원에서도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고요. 최근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함께 만드는 마을지》라고 해서 제주문화원에서 1년에 한 마을씩 정리해서 좋은 마을지 책자를 만들어내고 있죠. 때마침 또 한 2년 전에 제가 태어난 신엄리 마을을 우리 백종진 사무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잘 마무리돼서. 또 엇그저께는 그때 발굴된 사진 자료를 가지고 제주문예회관에서 마을 사진전을 하고 굉장히 일련의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해나가고 있는, 그런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양승현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센터에서 '혼디 모영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활동가 운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그러네요. 그런 여러 활동가분들의 마을 자원 조사라든지 아카이

빙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리 또는 지원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같이 올립니다.

우승현 서귀포시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활동가님 나오셨습니다.

서귀포시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주민 참여형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황이새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사님이 오셨습니다.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드는데요.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재직하면서 전시, 교육 그리고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제주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 근무했고, 구술 채록 조사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섯 분이 토론을 해 주실 거고요.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저한테 좀 요청사항을 줬습니다. 마을 자원 아카이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론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오늘 다룰 만한 내용을 몇 가지 주제를 정해서 주셨거든요. 한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아마 여러 토론자분들도 받았을 것으로 보고요.

마을 자원 개념

정광중 좌장

본격적인 마을 자원 아카이빙 전략에 대해서 토론하기 전에, 제가 아까 소개했던 마을 자원하면 이런 게 생각나더라. 그래서 그 이유가 뭐더라 하는 얘기를. 마을 자원하면 뭐가 떠오르는지 또 그 이유가 또는 배경이 된지 한 번씩 먼저 말씀을 트고 나서 본격적인 토론을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오신 두 분은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우리 백종진 사무국장님께서, 이렇게 돌아갈까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백종진 토론자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아까 시간이 넉넉하다고 하니까. 첫 번째 질문은 단체 소개로, 저는 제주문화원 사무국장으로서 먼저 소개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제주문화원, 아까 성북문화원 얘기들으면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부럽다. 일단 제가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행정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그 위에 있는 임원진이나 원장님들 등 배울 게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인원은 저희들은 5명입니다, 제주문화원의 사무국이. 근데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성북문화원이 한 16명 되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성북문화원이 재단이나 센터 수준이에요. 근데 2020년도에 성북문화원하고 제주문화원이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에서 표창하는 민간기록 유공 표창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저희 제주문화원도 있었습니다. 적게 활동하긴 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성북문화원 대비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어찌 됐든 중앙 차원에서는 같이 민간기록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마을 자원하면 아까 우리 정광중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2018년부터 저희들이 《함께 만드는 마을지》, 마을 기록화 사업 결과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

고. 그 마을하고 논의가 되면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먼저 글로 그다음 사진으로, 영상으로 해서 3년 차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중 좌장

우승현 선생님, 간단하게.

우승현 토론자 서귀포시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활동가

자기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우승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제가 이런 자리에 와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떨리는데. 그래도 현재 저희 중앙동에서 ‘중앙동 마을 앨범’이라는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제주 토박이는 아니고요. 지금 대학 때문에 제주도에 내려왔다가 정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서귀포에 살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많은 주민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이야기들이 모두 마을 자원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1960년대 1950년대 당시에 중앙동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그 모습들이 정말 제가 봤던 것처럼 생생하게 앞에 그려지는 경우도 있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찾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일상 그리고 그 당시의 일상들이 모두 마을 자원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중 좌장

우리 김미진 박사님.

김미진 **토론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어 조사 연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주어 팀의 사업은 아닌데 담당 현혜림 선생님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제주학 아카이브는 2012년에 처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5만 건 가까운 아카이브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교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마을 자원은 무엇인가에 대해 순간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사람이 마을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을 구성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 자원을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이 아마도 마을 자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중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언어에 집중해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광중 **좌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황이새 학예연구사님.

황이새 **토론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황이새 학예연구사입니다.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거는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 동안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민속자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마무리할 시기에 와서 담당했었는데, 여기 몇몇 선생님들께서도 참여해주셔서 잘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수님께서 물어보신 마을 자원에 대해서 저는 박물관에 근무하

고 있어 박물관적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마을 자원이라 하면 우선 생각했을 때, 특히 박물관이 민속·자연사다 보니까 단순한 민속보다도 환경적 부분과 함께 고려한 그런 것들을 많이 탐구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환경적 특성 그리고 역사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카이브의 범위가 어떻게 보면 박물관보다 더 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은 전시나 그리고 소장할 만한 가치나 관리할 가치 있는 그런 유형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박물관에서 아카이브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원이라 함은 문화유산의 성격으로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광중 **좌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승현 팀장님.

양승현 **토론자**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팀장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승현 팀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건 제가 올해부터 마을활동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느낀 이야기들을 공유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마을활동가분들이 각 마을에 있는 자원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센터에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가 별도의 큰 사업으로 마을 자원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활동가분들이 조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 현황이나 역사 자원, 인적 자원, 유희 공간과 같은 정보들을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할을 마을활동가분들이 맡아주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마을 자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는 ‘농촌 현장 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주민들 스스로 마을 자원을 발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발굴한 자원들은 이후 ‘마을 만들기 사업’에 활용되고 있어 자원을 함께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저희 센터는 매년 ‘농촌 현장 포럼’을 운영·지원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자원들을 바탕으로 여러 마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질문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광중 **좌장**

네 감사합니다. 강만익 박사님 마을 자원 개념 한번 멋있게 말씀해주십시오.

강만익 **토론자**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전부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저는 순수한 개인 연구자 자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을 자원은 ‘서동궐’입니다. ‘서동궐’ 혹시 아십니까? ‘서동궐’은 육지에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마을에 있는 문서를 보관하는 함, 나무로 만든 궐짝, 그거를 ‘서동궐’ 또는 ‘지동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상남도까지는 이 용어가 남아 있는데 혹시 공주학연구원에서 읍면 지역 찾아가는 자료 수집 때 들어본 적 있나요. 제주 지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보다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 ‘서동궐’라는 이야기죠. ‘서동궐’이 있는 마을은 문서가 많은 마을이고, 역사와 문화를 자랑할 만한 마을이라는 이야기고. ‘서동궐’이 없는 마을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건데, 안덕면 덕수리에 가서 우리 《덕수리지》 마을지를 쓰려고 호적 중초가 보관된 곳을 봤더니 ‘서동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자원은 곧 ‘서동궐’다. ‘서동궐’이 가지고 있는 마을은 고문서라든가 근대·현대 문서, 마을을 움직여나가는 가장 중요한 문서

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 ‘서동궐’이기 때문에 ‘서동궐’을 저는 마을 자원이라고 예로 들겠습니다.

정광중 **좌장**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아름 선생님과 장지희 선생님도 멀리 오셨지만, 혹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마을 자원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한 마디 짧게, 그 이유가 뭔지.

장지희 **발표자** 성북문화원 성북아카이브팀장

저도 김미진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말씀을 듣자마자 마을 자원은 사람이라고 가장 먼저 떠올라서, 아까 그 주민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물건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주민분들 그리고 시민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야기도 남기지 않으면 사라지는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마을 자원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광중 **좌장**

공동분모가 됐고 고맙습니다.

이아름 **발표자** 공주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제가 마지막이어서 앞에서 다 말씀하시면 전 무얼 말하나 걱정했는데. 마지막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앞선 질문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 자원이 뭐냐고 질문하신 거에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고, 아까 ‘서동궐’도 말씀하셨지만, 제주 지역에는 공동체 형성이 육지보다 더 공고하고 지속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마을 자원은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중 **좌장**

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표하신 두 분과 또 우리 토론자 여섯 분의 마을 자원

개념과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또는 경험 이런 걸 토대로 삼아서 피력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 자원에 대한 개념이 윗세대하고 중간세대하고 아랫세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만들어지느냐 그걸 한번 확인한 다음에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쭙본 것이고요. 이건 토론 질문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마을 자원 과거와 현재의 변화상

정광중 좌장

본격적으로 마을 자원 아카이빙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에 받은 질문지에는 마을 자원을 선정할 때 과거 시점이나 현재 시점에서 서로 비교해 보면 변화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변화상이, 어떤 변화상이 있을까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지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 백종진 박사님과 강만익 박사님이 답변자로 할당이 돼 있습니다. 먼저 두 분이 짧게라도 말씀해주시고, 모자라면 제가 다른 분을 지목해서 보완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종진 박사님께서.

백종진 토론자

과거하고 현재 변화상은 어떤 내용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내용보다는 저는 생각하기를, 문화원에 제가 2008년 이후로 와서 아까 강만익 선생님이 속해 있는 제주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도 겸직했었고, 지금 2015년부터 제주문화원에서 일하면서 일단은 실무자 입장에서든 변화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문가만 가서 마을지 결과물이, 기록화 사업을 할 때 전문가만 가서 하다 보니까 언제나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을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요, 그 결과물이 나올 때. 그래서 저는 문화원에서 2018년부터 실질적으로 진행했는데, ‘우리 마을 역사 문화 기록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함께 만드는 마을지》인데, 그때 제가 시도한 거는 전문가를 글을 쓰고, 마을 주민들은 안내해 주고 입으로 글을 쓰고, 그래서 공동 집필자로 책에다가 나란히 쓰게끔 하니까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문가 위주의 기록, 글은 그렇게 하지만은 대등하거나 아니면 보조 역할로 마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서도 어떻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처음에는 전문가 위주로 할 때는 역사, 민속, 행정 변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냥 쓰면 주민들이 다른 쪽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주민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 도구, 물질 도구라든지 밭일 도구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 유적, 역사 유적이 아니라 용천수라든지 말, 공동으로 했던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또 공동 자원, 회관, 마을 창고, 공동 극장,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금 실제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 해방 이후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단 마을 조사할 때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참여하는 분들이 마을 원로들이 많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야 해요. 그래서 언제나 역사 파트를 반드시 넣어줍니다. 이 조건을 달고 넣어주는데, 간혹 4·3에 관한 인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처음 시도하는 게, 전문가에서 아까 시민기록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민기록단한테만 맡길 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증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전문 집필자하고.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민기록자가 있는데 그분들을 조금 투입해서 나름대로 글을 쓰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광중 작장

우리 백종진 박사님은 이어서 나올 답변까지 미리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만의 박사님 이어서 뭔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만익 토론자

제가 최근에 덕수리·도순동·용흥동·동복리 마을지를 만드는 작업을 거의 주도한 경험이 있는데. 물론 과거에는 마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서라든가 유물, 유적 이런 것들만 마을 자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마을 자원을 새로

게 만들어내는 활동, 과거에는 전혀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마을에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용흥동에 있는 영포 폭포 아시죠? 영포 폭포가 과거에는 올란지 폭포였는데 지역사회에 전혀 알려지지 못했던 그런 관광 자원인데. 언제부턴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 인증샷이 널리 확산되면서 마을에서도 영포 폭포라고 하는 거를 관광 자원화, 마을 자원화해서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제주 지역 곳곳에 새롭게 마을 자원을 해석하고 생성하고 활용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걸 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자원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제주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광중 작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 자원을 선정할 때 과거의 경향을 보면 아주 오래된 것, 역사적으로 깊은 것 또는 잘 알려진 것 그런 걸 중심으로 많이 다뤄왔고, 또 마을에 가서 얘기하면 주로 그런 얘기만 어른들이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까 백종진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도 이야기가 전하고 이어지고 있는데. 생활, 그런 게 거의 다 사라지긴 했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썼던 거, 입었던 것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 경험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랄까, 선정 기준이랄까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많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한 20~30년 전만 해도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기록하고 사진 찍고, 물어봐서 뭐 하느냐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김미진 박사 잘 아시겠지만, 현재 쓰는 말이 내일 모레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녹화, 녹음, 기록해서 잘 남기고, 거기에 또 어떻게 사용이 이어지도록 할 것인가 굉장히 마을 자원의 중요성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점이 아닐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또 어려운 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마을 자원에 대해 무얼 하려고 하면 좀 잘 모르는 거, 어른들이 고리타분한 얘기하면 안 접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자연을 접해서 마을 속에 있는 곳자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벌레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젊은 연구자들, 최근에 공부한 연구자들하고 또 50대 이상, 40대 이상이 된, 좀 더 위에 있는 오래된 연구자들과 이렇게 비교해보면 굉장히 마을 자원에 대한 접근 방법도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점과 관련해서 덧붙이거나 의견을 말씀하실 선생님 계신가요? 혹시 플로어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의 마을 자원 선정 기준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본인이 경험할 때 많이 애먹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대표로 이렇게 말을 이어가긴 하겠지만 우리 플로어에서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토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록 주체의 변화상

정광중 좌장

두 번째 주제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마을 자원을 기록하는 주체, 아까 백종진 사무국장님이 전문가 입장, 전문 집필가 입장, 시민기록단 또는 새로 선임된 그런 생활 조사단, 이런 임원, 회원들이 있겠죠. 그분들하고 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많이 기록하게 되는데. 어쨌든 변화가 그동안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꽤 다양한 기관에서 또는 다양한 단체에서 개별 연구자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기록 주체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록 주체의 변화상과 관련해서 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간기록자 입장에서 양승현 팀장님과 우승현 활동가님이 지목돼 있는데,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양승현 토론자

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마을 자원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거나 기록하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다. 그러다가 2020년도 당시 위촉된 마을활동가들을 활용하여 제주 전역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자원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법정동과 행정리 기준으로 제주시는 136개 마을, 서귀포시는 98개 마을로, 총 234개 마을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마을활동가들이 직접 각 마을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마을의 자연환경 자원, 역사·문화 자원, 마을의 연혁과 유래, 기본적인 인구 현황,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간과 토지 현황 등입니다. 이렇게 234개 마을을 마을활동가들이 조사한 결과물은 모두 저희 센터로 전달됩니다. 해당 조사 결과는 현재 센터 홈페이지에 '마을 정보 안내'라는 카테고리를 통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주도 내 모든 마을의 자원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마을 주민과 마을 만들기 사업 관계자, 그리고 마을 데이터가 필요한 분들이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을 자원 기록의 주체는 초창기에는 센터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기획하는 방식이었다면, 2020년 이후부터는 마을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 자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광중 **좌장**

네 이어서 우승현 활동가님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우승현 **토론자**

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대표해서 나오신 센터분들과 다르게 저희는 조금 신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2021년도에 설립돼서 올해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저희가 사업을 구상할 때, 그래도 서귀포시 중앙동이 옛날에는 상업의 중심지였지만 그때 당시의 기록들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센터 측에서 이 이야기들을 좀 발굴해내고 후손들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남겨놓는 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때부터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좀 모험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분을 모셔서 자문회의한 결과, 연구자분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중앙동 주민분을 양성해서 그 주민분들이 직접 A부터 Z까지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 초 제주학연구센터와 저희가 업무 협약(MOU)을 맺고 주민기록단 양성 과정을 운영한 후 지금은 저희가 기록단으로 꾸려진 주민분들이 직접 아카이빙 프로젝트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래도 행정이나 연구자분들께서 직접 주민분들이나 그리고 센터, 유관기관들을 찾아뵙고 이런 이야기들을 발굴해냈다면, 저희는 민간 관점으로서 주민분들이 직접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다르게 학술적인 부분보다는 생활사, 그분들이 살아왔던 이야기들, 그 속에서 중앙동이라는 이 마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옛날과 지금은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중 **좌장**

네 고맙습니다. 마을 자원에 대한 기록 주체의 다양성이랄까 변화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앞에서도 계속 얘기됐지만 주로 필요한 사람이, 연구자가 필요한 자기 분야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목적 의식에 맞춰서 조사하고 그러는데, 이게 가끔가다 마을 조사를 하러 다니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 마을에서도 굉장히 숨은 실력가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강만의 박사님도 잘 알지만 추자도를 조사하러 갔는데,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쓴 자서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자도에서 자서전까지 낼 정도 숨은 실력가가 마을 인적 자원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게 벌써 한 15년 전이에요. 근데 다음에 다른 마을에 갔더니 또 자서전을 만든 사람이 서귀포 쪽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사람한테 배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유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서전이라는 게 사실 3분의 1 이상은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라든지 또는 그 마을의 행사라든지, 자기 직계에 대한 결혼식, 상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마을 또는 서귀포의 일부 지역에 대한 과거사를 복원해낼 수 있다. 또 복원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알려지지 않은 자서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현장 조사에서 거론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먼저 자서전 가져가서 참고

하세요,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럼 뭔가 얘기하면서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우리 양승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34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234개의 마을에는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뭔가 일이 있으면 나타나서 한마디 하고, 자기가 가진 기록지를 내놓는 그런 숨은 실력자들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마을 자원 아카이빙하는 과정에서 유심히 좀 눈여겨보면서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백종진 사무국장님하고 강만익 박사님 연구자 입장에서 두 분 중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 자원 기록 방법

강만익 토론자

경험을 사례 삼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엔가 도순동 마을 지를 쓰면서, 제 고향 마을이 서귀포시 도순동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마을 자원을 기록하는 방법이 꼭 좋기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마을 자원을 기록합니다.

실례로 도순동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녹나무 자생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 회관에서 출발해가지고 도순천 건너서 이 녹나무 자생지까지 가는 길을 이른바 ‘녹낭길’이라는 걸로 만들고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마을과 녹나무 자생지 사이에 있는 마을 자원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해설하면서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마을 자원을 기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는 대천동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어떻게 마을 자원을 기록하고 있냐 하면, 대천동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장소를 10군데 선정해 가지고 이른바 ‘대천십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천동은 용흥동, 도순동, 월평동, 강정동 등에 속했기 때문에 이 네 지역 마을 사람들이, 물론 희망자만 모여가지고 ‘대천십경’을 탐방한다는 이야기죠. 걸어가면서 또 만나서 술 한잔하면서, 아무튼 어떤 대천동의 공동체적 의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지만, ‘대천십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천동이 가지고 있는 각 마을 자원을 어떤 방법으로 마을 자원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천십경 만들기’라든가 ‘녹낭길 걷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역시 마을 자원을 기록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마을에서 진행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자원을 기록하고 있는 팀에서는 이런 종이 자원뿐만 아니라 현재 실제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한 후손들에게 기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주목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광중 좌장

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을의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을 기록해 간다. 이런 여러 방법으로 마을 자원을 기록해 간다는 관점인데요. 그러면 다시 이어서 좀 더 자원을 어떻게 기록해 가는 것이 좋을까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토론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마을 자원 기록 방법에 대해서 우리 황이새 선생님 먼저 말씀을 열어주시겠어요?

황이새 토론자

제주문화원이나 제주문화원연합회에서 이제 마을지를 매년 내고 계시는 와중에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3년부터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반 마을지가 아닌 우리 박물관에서 하는, 어떤 마을의 민속 문화를 중점적으로 기록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어떠한 읍에 어떤 자료는 무엇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사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박물관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생생함을 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그래서 특별히 조사원분들께서 지역의 면담자가 소장한 자료, 사진은 당연하겠지만 거기에 더불어 그분들의 목소리를 병행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낸 책자를 보신다면, 종이로 발간한 책자이지만 그 내용 속 자료에 관해 설명할 때 제보자가 누구이고 그분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제주어를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는데, 제주어와 그 밑에 표준어도 대역해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글을 읽으면 영상은 아니지만 마치 이 자료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 의생활 도구에 어떤 것, 이 재봉틀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어찌고저찌고, 예전

에 시집을 때 우리 친정 엄마가 주신 거 등 그런 내용들이 같이 수록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물관이 진행했던 마을 기록 사업에서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조사원들께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셨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다시 자료를 보니 정말 귀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러한 기록 방법, 제주어 그리고 어떤 생활사, 개인의 생활사를 잘 담을 수 있는 기록까지 이어진다면 참 좋겠다. 그렇게 또 박물관에서 해왔다는 걸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정광중 좌장

고맙습니다. 마을 자원 기록 방법 관련해서 우리 백종진 사무국장님 한 말씀 덧붙여 주십시오.

백종진 토론자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의 마을 자원 기록 사업, 2013년 《제주인의 삶과 도구》 책자에, 사실은 그게 우리 문화원에 나온 책자를 아이টে姆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문화원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은 많고. 아까 성북문화원처럼 체계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가 중심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을 자원 기록도 우리 도내에서 많이 합니다. 우리 문화원도 있고, 제주학연구센터도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 기타 유관 기관이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보니까 종이 책자 발간 시 중점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전에 질문인 기록 주체의 변화상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전문가 위주로만 한 경우에는 마을 주민과 어떤 소통의 부재로 마을 주민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시민기록단이라든지, 마을 주민들한테 전적으로 맡긴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의 글쓰기라든지 조사 방법 등 그러한 능력이 사실은 부재합니다. 열정은 있지만. 이거를 같

이 어떻게 매칭시켜서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먼저 가서 처음에 목차를 제시하고 마을주민회를 합니다. 거기에 이장을 비롯해서 개발위원장이라든지 청년회장, 부녀회장, 마을자생단체장 전부 오십사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추진하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협조 바랍니다라고 먼저 공유하고 승인받은 다음에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마을 주민들의 어떤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결과물은 머릿속에서 그려진 것만큼 나오지는 못할 겁니다.

저희는 제일 아쉬운 거는 그렇습니다. 아까 예산 얘기했는데,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또 인력이 확충된 기관에서 앞으로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성북문화원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또 그 역할은 제주가 늦었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문화원 차원에서 제주는 보조금 단체가 너무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450개 단체, 일 년에 천만 원 이상 받는 단체가 제주도도 너무 포화인데. 이것을 조금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 수 있는 게, 물론 후발이긴 하지만 제주학연구센터가 앞으로 하나의 구심점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중 좌장

네 고맙습니다. 마을 자원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기관에서 많은 역할들을 분담해서 또는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다이내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결과물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꼭 방법론에 국한되는 건 아니고 마을 자원 자체를 어떻게 발굴하고,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고, 디지털화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이 같이 수렴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을 자원 디지털화 방법

정광중 좌장

그러면 이어서 마을 자료 기록 방법과 관련해서 연결되지만, 우리 음성이라든지 영상 자료, 사진 자료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점이랄까, 고려해야 할 사안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느 분이 좀 먼저 말씀을 해주면 좋을까요? 김미진 선생님께서 먼저 좀 해주실래요?

김미진 토론자

제주학연구센터는 아카이브 팀 2명이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어 팀이 현재는 위촉까지 5명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원래 정해져 있는 인원 기본 정원은 아카이브 팀 1명이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어 팀은 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속과 역사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아카이브 팀은 1명이긴 하지만, 나머지 모든 팀에서 자료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방법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제주어 팀 같은 경우에는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처럼 36개 마을 그러니까 12개의 제주도 읍면을 실제로 조사하고 각 마을에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씩 제보자를 선정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내는 구술 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역사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나 마을이 소장하고 있는 문서를 가지고 스캔해서 해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해녀를 주제로 바다와 마을에 관한 ‘마을 기록화 사업’으로 해녀와 마을 이야기 책자를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카이빙을 센터에서 진행하고, 좌장님이 질문하

신 이런 과정에서 유념할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카이빙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라고 하면 초상권이나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채록하고 영상으로 담고 그분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책자 발간까지는 허락하시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싫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르신들은 난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작해도 그 부분 쇼츠나 동영상. 그러니까 몇 분짜리 동영상으로 해서 우리도 이제 약간 짧은 층을 공략하는 형태로 저희 누리소통망(SNS)에다가 올리는 것도 하고 싶다는 의욕은 있는데. 실제 그분들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엄청 힘들고요. 일단 얼굴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셔서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광중 작장

능히 이해가 갑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 실무 경험이 많으신 장지희 선생님하고 이아름 선생님께서 간단한 코멘트를 한번 듣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아름 토론자

저희는 기관에 방문하셔서 자료 열람 요청하시는 분도 꽤 많고요. 또 사진 자료를 요청하는 방송국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점이 저희도 고민이 많은 지점인데요. 저도 해결 방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지점은 기증, 기탁일 때 이 부분을 조금 명료하게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을 찍은 사진을 기증하시는 분이. 자기 얼굴은 상관 없는데 친구들까지는 괜찮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례들과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저희가 안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

찮지 않은 분들 그리고 그것에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저희는 비공개 처리를 합니다.

정광중 좌장

고맙습니다. 우리 장지희 선생님 혹시 좋은 사례가 있으시면.

장지희 발표자

저희도 저작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고 이거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올려놨는데 발견돼서 연락이 올 수 있는.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긴 한데,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조심하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인물이 나오면 모자이크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아카이브 기록물마다 유관 기관에서 수집한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생산한 것도 있고, 기증받은 기록물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공공누리 마크를 다 붙여놓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방송이나 이런 데서 사용 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저희가 다른 데서 수집한 기록물은 드리지 않고 저희가 직접 생산한 기록물 위주로 제공하고 있고. 공모전 같은 거 진행할 때도 만약에 학교 졸업 앨범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서 기증자의 얼굴뿐만 아니라 전교생 얼굴이 다 있는 것이라 보니까 그런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는 따로 하지 않고요. 표지 정도 사진 촬영해서 올린다거나 저희도 조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매년 법학연구소 쪽에 저희 운영위원님이 계셔서 저작권 관련해서 자문받긴 하는데 저희도 실무를 할 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정광중 좌장

역시 들어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랄까 사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감이 오거든요. 우리 양승현 팀장님하고 우승현 활동가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담당 업무하시면서 혹시 이런 관련되는 일이 있었는지.

양승현 토론자

저희 센터에서 기록하고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음성 자료나 영상 자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록지에 포함된 항목 중심의 자료와 현장에서 촬영한 일부 사진 정도 보유하고 있어 초상권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자료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마을 자원 기록 방식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마을활동가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서 이장님이나 사무장님 등 마을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구술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활동가분들은 사전에 향토지나 마을지, 그리고 ‘농촌 현장 포럼’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발굴했던 자원 자료들을 대부분 숙지한 다음 방문하기 때문에 비교적 체계적인 구술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지나 역사·문화지와 관련된 서적 자료들도 함께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을의 자연환경 자원이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해서는 활동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진을 촬영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콘텐츠들은 모두 센터로 전달되고, 그 결과물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처럼 별도의 책자를 발간하거나 출판물로 제작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마을 자원이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기록이 가능하도록 기록화 시스템을 보완하고, 아카이빙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 위탁·운영 중인 사업 가운데 ‘서귀포시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준공이 완료된 지구의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시설에서 운영되는 주민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 등 주민들이 참여

하는 다양한 활동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관계자 인터뷰 영상이나 시설 전반의 운영 현황 등을 영상과 사진 자료로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자분들로부터 동의와 동의서를 모두 받은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구축된 자료들은 향후 해당 시설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설이 위치한 마을과 마을 자원까지 함께 담고 있어 마을 차원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용역을 통하여 추진 중이에 있고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결과물들은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최대한 공개할 예정이고 해당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광중 좌장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우승현 선생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우승현 토론자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중앙동 앨범 속 사진을 수집해서 마을 앨범을 만드는 것과 주민분들을 인터뷰해서 구술 채록 영상을 담는 10인을 대상으로 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다른 기관과 센터들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이미 유포된 자료는 없지만, 이제 유포될 자료와 관련해서 김미진 선생님의 말씀처럼 초상권이라든지 저작권 문제들을 늘 유념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사진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찍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상 그분이 최초로 사진을 찍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이제 물어, 물어서 이거 어디에서 얻었어요? 또 이분 지금 어느 쪽에 계신지 이렇게 여쭙보면서 최초 유포자에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서 이제 업로드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구술 채록 영상을 담다 보면 그 원로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분들

의 아이들, 자식들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원로의 자제분들이 이 촬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늘 원로분들께 그 자제분의 전화번호를 직접 받거나 아니면 꼭 사전 동의받을 때 자제분들께도 영상 찍는다고 꼭 말씀드리고. 내용이 유튜브나 방송이 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초상권이라든지 저작권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중 작장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마을 자원에 대한 기록 방법이랄까, 또는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 또는 특별히 유념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면 더욱 좋고요.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우리 두 박사님은 보텔 말 없으십니까? 우리 백종진 사무국장님, 강만익 박사님 작업하다가 전부 파일 날려서 공부한 거 다 날아갔다 이런 이야기. 그럴 때에 극복 사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주세요.

강만익 토론자

저는 용흥동 마을의 근현대 문서를 조사하면서 아예 거기서 살면서 밤 새면서 작업했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아침에 오셔 가지고 당신 누구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기억이 있긴 한데.

저는 온라인 서비스 차원에서 연구자로서,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고, 저는 조만간 시간이 되면 제주의 어떤 마을사를 어떻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을사를 정립하려고 마을사를 쓰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마을지가 자료화된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지를 썼기 때문에 어떤 객관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최근에 오면서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마을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 발간되는 마을

지 역시 어떤 사료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마을지에 대한 관심이 좀 꽤 되거든요.

제 욕심은 뭐냐면 물론 제주학연구센터가 상당히 아카이빙 작업을 선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지가 발간된 사례가 거의 100건이 넘거든요. 제주도가 가능한 이유는 이게 시청에서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주민 참여 예산을 통해서 마을지가 만들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마을지가 아주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만들어진 거를 제주학연구센터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일단 전부 다 수집해 주시고. 그다음은 그거를 한 장 한 장 고화질 PDF 파일로 스캔받아서 온라인으로 공개하면 전국 어디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그걸 보면서 연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을지만큼이라도 다 수집해가지고 고화질 PDF로 만드는 작업을 해서 온라인으로 공개해 주면 전국에서 제주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미진 토론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2022년부터 마을지·향토지 수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강만익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어디서나 마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도서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도 부딪히는 문제가 또 그거더라고요. 저작권과 초상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을과 협의해서 마을에서 저작권 동의를 받아가지고 진행해보자고 해서 수집하고 있긴 한데. 그 안에 개개인의 저자라거나 혹은 거기에 수록된 사진들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대한 동의받는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기획해서 추진을, 아직까지는 수집하는 단계이긴 합니다. 수집은 일단 해보자고 해서 최대한 수집해서 저희 자료실에 한 편에 모아두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도서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도 나름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강만익 선생님이 북

사본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마을지나 향토지가 있다면 저희 센터에 기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광중 최장

예 고맙습니다. 마을지를 보관해서 또 올려서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네요. 저작권, 초상권. 그 마을지를 만드는 당시에는 다 허락했지만 이게 또 다른 기관이 인수받아서 다시 올리는 거는 별개의 문제니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지금 얼핏 《신엄리 마을지》도 지금 그렇게 해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줘서 될 건가 지금 걱정됩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저도 2월에 퇴직하면서 저는 인문지리학 전공이기 때문에 전국 여행 다니면서 관광지도를 모으는 걸 취미 삼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관광지도, 이거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서 그냥 공항이나 부두에 비치하는 그런 건데, 그것도 5년, 10년, 15년이 지나면 마구 바뀌어요. 행정기구 심지어는 행정 경계선도 바뀌고 그렇잖아요. 통합되기도 하고 또 관광도도 새로 개발돼서 마구 나오잖아요. 그럼 누구누구 생가, 무슨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없었던 게 이제 지도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어마 장자 하게 모았다가 결국 별로 써보지 못하고 버리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주대학교박물관에다 전화를 했어요. 여차여차해서 이런 지도가 있는데 어떻게 그쪽에 좀 소장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 즐겁게 받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마대, 포대로 하나를 그냥 준 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디지털카메라를 2006년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2006년 이전에는 전부 다 슬라이드 필름을 썼거든요. 슬라이드 필름은 슬라이드화가 돼 있어서 그 필름을 거의 한 10만 장 정도 되더라고요, 한 30년 찍으니까. 그것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것도 좀 박물관에다 얘기했더니 디지털화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작업

이 가능하니까 시간 문제다. 그걸 달라 해서 며칠 전에 만났더니 디지털 변환이 한 95%가 끝났대요. 그래서 그럼 그거 어떻게 쓸 거냐, 활용할 거냐고 활용 문제를 좀 논의해 보자 이런 와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자원 관련 기록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자기 혼자만의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주변에 있는, 여러 연구자들 또는 여러 단체, 관련 기관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자원을 기록하는 방법이랄까 디지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전국 단위로 같은 기관끼리 또는 유사한 기관끼리 협력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다뤘습니다. 마을 자원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근거. 그다음에 마을 자원을 기록하는 주체의 다양성, 그리고 마을 자원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기록 방법, 그리고 디지털화하는 디지털 자료를 자료화할 때 여러 가지 맹점이랄까 또는 유념할 사항이랄까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자료 관리 및 활용 방안

정광중 좌장

네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겠죠. 마을 자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개인이 연구 활동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 사진 자료, 영상 자료, 인터뷰 자료 등 유형의, 무형의 자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토론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약간 일부 부분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좀 더 주제를 바꾸는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개별 토론자가 없어서 우리 플로어에 열심히 연구하시는 젊은 연구자분들 의견을 한번 먼저 주시면. 우리 앞에 계시는 송정희 선생님부터 여러 조사 다니시면서.

송정희 청중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송정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요를 조사하고 있고, 제주굿 관련해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거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해녀 조사와 민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거를 함부로 공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관만 하고 있기에 어려움이 있다.

제가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외장하드를 날려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살리지 못한 채 그냥 갖고만 있습니다. 언젠가 그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근데 지금은 굿을 조사하는 경우에 굿을 하루 종일 하게 되면 한 10시간에서 길게는 15시간도 하거든요. 오래 하다 보니까 굿은 편집해서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립니다. 이게 공개화될 수 있는 시점이 될 때까지 비공개

로 올라가 있는 굿 영상들은 좀 몇 편 있고. 민요 조사 자료는 제가 그냥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공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외장하드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것도 용량들이 되게 크고. 그래서 아예 스토리지 비슷한 걸 좀 더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중 좌장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자기 경험과 업무와 관련해서 혹시 자료 관리 방법, 활용 방법 다 좋습니다. 없으시면 우리 장지희 팀장님 발표 중에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하는 것이 우리 제주 사회에 도움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장지희 발표자

저는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수집하는 기록들이랑 이야기 자료들은 다 일단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저희 팀 연구원들이랑 성북문화원 내부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거기서 비공개 처리를 하면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고. 관리자 시스템에서 공개 처리를 하거나 새로운 글들을 업로드하면 아카이브 홈페이지에 노출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상에서 다 자료들의 파일도 업로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성북구청 서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올려놓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외장하드 한 2-3개 정도 사용하여 백업하고 그렇게 기록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구청 서버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즘은 클라우드 서버로 전환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쉽지는 않았지만 계속 논의해서 전환을 준비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기록들을 보존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한테 그것도 쉽지는 않죠.

정광중 작장

고민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이아름 선생님도 한 말씀.

이아름 발표자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 센터는 비슷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서버 관리 유지보수 업체에 저희는 비용을 주고 운영하고, 스토리지 유지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분기별로 비용을 내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고. 서버에 올리기 전까지 저희도 외장하드 백업은 계속하고 제가 그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비슷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질문에서 보면 어떻게 자료들을 관리·활용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활용 방면에서 좀 정확한 대답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달마다 ‘이달의 자료’라고 콘텐츠를 만듭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이달의 주제를 정해서. 예컨대 10월에 한글날을 주제로 한글날 기념으로 했던, 문화원에서 1960년도에 백일장 대회를 했던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그때 나태주 시인이 상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 있도록 ‘이달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카드 뉴스처럼 만들었는데 그것도 요새 사람들이 다 읽기가 힘들어서 한 장으로 만들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지점에서 여러 가지 노력과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고 이런 자료도 여기 있구나 이 기관에 이런 게 있구나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꺼내서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광중 좌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시네요. 우리 강만익 박사님이랑 백종진 국장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백종진 토론자

저희도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서 종이, 그러니까 글로만 작업하던 거를 사진 자료,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범위를 학문적 번역 위주에서 《공감 5080》이라고 50년대에서 80년대, 그리고 50-80대 연령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계속 시리즈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집을 하고 만드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다 스캔받고 책자 만들고 마무리로 다시 돌려주고.

근데 그 과정이 아마 제주에서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려움일 건데 그분들이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언제 봤다고 자기 사진 그냥 쓰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일단 아까와 같이 ‘우리 마을 역사문화 기록화 사업’으로 들어가서 그 과정에서 사진이 나오고, 그럼 그거를 다음 해에 책자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활용하는 방법까지 얘기하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신업리가 딱 좋은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신업리 2023년도에 마을지가 나오고 2024년도에 《공감 5080 신업리 편》이 나왔고 올해는 그 기초 자료로 영상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큐멘터리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제주 마을 영상 기록이라고 해서 애월읍 신업리 시작해가지고 시리즈로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게 하나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제작한 영상은 마을에다가 전부 췌습니다. 그 자료를 사진 전시했던 거랑 해가지고 다 주니까 마을에서는 하나의 기록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이제 마을의 몫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까 다큐멘터리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어요. 25분에서 30분 분량으로 해서 방송용으로 만들긴 하는데 업로드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저작권 문제, 특히 초상권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 마을하고 별개로 개인 걸로 하는 구술 영상 다큐를 저희는 2018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40편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가 아까와 같이 한 번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순간 전세계적으로 공개

되기 때문에 그건 못하고 있고.

단, 이걸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KCTV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저희가 만든 영상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분들한테 허락받은 거죠. 제작할 때부터 먼저 허락을 받고 제작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KCTV에 제공할 때도 사전에 제보자분들한테 허락받고 하는데. 일단은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올해에 이걸 그냥 한다, 사진 작업을. 예를 들자면 사진을 수집해야 되는데 하면 올해에 끝나지 않고, 올해는 접근하고 내년에는 그걸 적극적으로 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관계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라는 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마지막 질문할 때 얘기가 나올 것 같고. 하여튼 기관끼리 서로 협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중 작장

아주 좋은 말씀이고 경험에서 오는 그런 상황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백종진 사무국장님 말씀이 나왔으니 제가 좀 하나 덧붙이면 말이죠. 신임리 마을지를 좀 쓰다 보니까 과거에 고문서가 많이 나왔어요. 저도 거기 출신이지만 그렇게 고문서가 많은 줄 몰랐어요. 사실 보면 모르겠어요. 한자는 알지만 한문 해석이 안 돼. 근데 낱장짜리도 있고 마구 그냥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마을도 다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지를 만들었고 이제 사진 자료집도, 영상 자료집도 만들었고 마을 사진전도 다 했으니까 고문서 자료를 그냥 마을문고에 보관할 게 아니고 이걸 어느 기관에 줘서 전부 책자로 만들어서 원본은 원본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걸 번역해서 번역본하고 원본을 몇 번 받고, 원본을 거기 기증을 해라. 그게 제주대학교박물관이 됐든 제주문화원이 됐든 제주학연구센터가 됐든 보관하는 게 좋겠다. 마을 회관에 붙나면 그거 다 탈 거 아니냐 그럼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희 마을에는 아까도 제가 질문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돌코넝이’라고 있어요. ‘돌

코넝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한 80·90세 어른이 그냥 등에 지고 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리고 하면 좀 무겁긴 하지만, 근데 이게 중학교 앞에 그냥 정원에 놓여 있던 말이죠. 길가 옆 바로 옆에. 야밤에 가져가려면 얼마든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들 수만 있으면. 그래서 이거 거기 놔둬도 되겠느냐 지금 안 그래도 ‘뱃담’, ‘산담’까지 다 흠쳐가는 시대인데 그거 좀 고민해봐라. 그리고 그거와 쌍을 이루던 ‘돌코넝이’ 하나가 지금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와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알지만 우리 제주대학교에 계시던 유명한 민속학자이신 교수님이 신리엄 조사를 갔다가 연구하고서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돌려주고 박물관에 그냥 뒀버렸어요. 그랬더니 국가 유산이 돼버린 겁니다. 박물관 것이 아니고 국가 것이 돼버린 거예요. 박물관에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신임리 마을에서는 마을지를 쓰려니까 그 박물관에 가서 우리 마을로 돌려 달라 한 일화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똑같이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 주고 건 기증하는 걸로 해라. 그리고 신임중학교 앞에 있는 나머지 하나도 모형을 예쁘게 해서 꼭 필요하면 한 쌍으로 두 개 만들어 달라고 그래라. 그리고 원본은 좀 박물관에 기증해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분실될 소지도 없애고 그렇잖아요. 마을에서는 원형이 있으면 좋긴 하죠. 근데 원형이 있으면 원형은 언젠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마을에서 보관하다 보면 야밤에 와서 가져가면 그건 잃는 거예요.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된 묘소에 동자석도 다 뽑아가고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사례는 마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없어진 기암괴석이랄까요? 그걸 하나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 기암괴석은 직경 한 1m, 높이는 한 40-50cm 정도인데 손가락 다섯 개 구멍이 있어 가지고 딱 깊게 패어 있어서 ‘오손돌’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개인 집 앞마당에 놓으면 딱 좋을 만한 사이즈예요. 근데 그게 있었던 자리가 마을의 지명이 돼 있어요. 오손돌지구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임리 마을의 작은 소지명으로 남아 있는 그런 기암괴석 중 하나인데. 이게 1989년도에 20만 원에 개인 밭에 있던 게 팔려나갔어요. 그래서 제주시에 와 있다가 때마침 그 양반이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거 팔겠느냐 해서 당시 1989년에 25만 원인가 사 왔는데 팔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얘기해서 그걸 다시 300만 원에 사 왔어요. 300만 원에 사 왔는데 그 주인한테 주는 거는 300만 원이지만 그것도 포클레인으로 들고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한 운반비 포함해서 한 30만 원 들어가지고. 결국은 한 10배의 돈을 지불해서. 원래 있던 마을인데 그거를 지금 신엄리사무소 화단에 장식이 돼 있는데, 그거는 원래 있었던 오손돌지구랑 들어가는 입구 그 앞에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고 잘 장치해서 거기다 세워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사무소 앞에 있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이제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뭐든지 요즘은 마을 회의에서 결정돼야 한대요. 이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개발위원장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을 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마을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가 또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길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마을 자원 아카이빙 협력 방안

정광중 좌장

그다음에는 마을 자원 아카이빙 협력 방안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정 토론자가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마을 자원 아카이빙을 위해서 개인 연구자 또는 유관기관 등이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 개인 연구자와 관련 기관, 행정기관이 됐든 또는 제주문화원, 제주학연구센터, 민속자연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관련 기관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과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개인 연구자들은 가서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렇습니다. 공문을 가지고 와야 보여주겠다, 공문을 먼저 보내라 해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 자원을 아카이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의 연구가 중요도 하지만, 그 연구가 대부분 지역 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협력을 통해서 실체를,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 관점에서 우리 황이새 학예사님부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황이새 토론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마을에 사진 자료나 고문서 같은 자료들은 제주학연구센터라든지 각종 기관에서 소장하기 그나마 용이한 편이지만. 크고 무겁거나 그런 자료들은 사실 박물관이 지속적으로 수집해왔습니다. 우리 박물관도 역사가 올해 41년이 됐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하면 각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 그런 게 있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 연구자분들은 전문성 있고 연구를 잘하실 거고요. 저희

같은 기관은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연구자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관이 되게 단단합니다. 이제 한번 설립되면 계속 유지 관리되는 기관이고 그리고 기관에서 기관 소장품으로 관리된다고 결정되는 순간부터는 열심히 관리합니다.

그래서 개인 연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료를 발굴하고 수집하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해주시고, 우리 같은 박물관, 유관기관들은 그런 것들을 소장해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박물관 같은 경우도 직접 생산하고 참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상호 역할을 잘 설정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방안이 보완되고, 제주도민분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각인이 돼서 이제 수집은 이런 분들이 잘하니까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것이 나오면 당연히 박물관으로 기증해야지 인식해서 발굴과 수집, 관리가 순환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협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중 **좌장**

우리 양승현 팀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양승현 **토론자**

제가 아까 토론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중문동, 중문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장님을 만나서 마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여쭙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을 2층 창고에 중문마을의 역사와 사실적 기록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가봤더니 실제로 고문서들이 캐비닛 서너 개 정도에 담긴 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디지털화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안에 작은 전시

공간, 일종의 조그만 마을 박물관처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저희 센터가 그런 부분까지 직접 지원하기에는 사업비나 여건의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많이 막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토론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제주학연구센터나 제주문화원처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과 저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역할을 나눠서 협업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센터에서는 고문서나 기록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들을 발굴하고, 실제 아카이빙이나 기록화가 필요한 마을들을 관련 전문 기관과 연결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은 중문동, 중문마을 사례만 말씀드렸지만, 제주 전역 234개 마을을 살펴보면 이런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들이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센터와 관련 기관들이 함께 협업하면서 마을의 소중한 기록 자산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정광중 **좌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아름 선생님이 이제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먼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기 마을 자원 아카이브를 위해서.

이아름 **발표자**

도움되는 또 의미 있는 얘기를 들려야 하는데, 제가 일찍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마을 자원을 아카이빙하기 위한 것에 좀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제주대학교에서 연구하시는 선생님이 저희 쪽에 전화하셨습니다. 원하시는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는 저희 공간에 오셔서 자료 열람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주에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한 규칙을 넘어서서 도와드리기가 좀 어려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딱 정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이 원하시는 자료를 보실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규정한 규칙이 있지만 이 지점에서 유관기관이 개인 연구자하고 협력할 사안은 큰 어떤 방해가 되지 않는 지점으로 좀 서로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연구 확장성을 위해서 도움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여기 계신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우려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데 기관에서 조금 딱딱하게 굴면 좀 가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정광중 좌장

옛날에 자료가 필요해서 국회도서관까지 날아갔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 복사본 하나를 위해서 비행기 타고 국회도서관까지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김미진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같은 기관으로서.

김미진 토론자

양승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들으면서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일찍 오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보셨을 텐데, 저희가 애월읍 수산리 마을을 드론으로 촬영한 거를 시작 전에 영상을 좀 보여드렸어요. 애월읍 수산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박물관 형태로 마을에 있는 자료들을 모아 전시했었는데, 어느 시기가 좀 지나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이 마을 외에도 처음에 마을 지원금을 받아서 자료들을 정리하고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었을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관리가 되지 않으니깐 그것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장소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애월읍 수산리인 경우는 제주학연구센터와 연락이 닿아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책자를 보관하는 자료실은 있지만 문서를 보관하는 수장고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혹은 스캔 작업을 하거나, 사진에 대한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작업은 센터가 진행하겠다고 해서 올해 애월읍 수산리 마을 아카이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센터에서 하나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나의 주제로 집중 조사하는 거는 해녀나 민속 쪽에서 진행하고, 제주어 쪽에서 구술 조사하는 거 외에, 아카이브 팀에서 마을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시작한 기록은 처음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과물이 마을 소개 영상으로 제작됐고, 전시 자료, 옛 사진 자료 등을 모아 어떤 형태로든 아카이빙 해서 보여드릴 계획인데요. 사실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적인 지원이 있지 않다면 그 마을에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반짝 전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지속되지 못하고 다른 형태로 혹은 다른 장소로 활용될지 모르지만, 귀한 자료가 창고에 다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하는 게 좀 걱정되어 양승현 팀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입니다.

정광중 좌장

고맙습니다. 우리 강만익 박사님 개인 연구자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강만익 토론자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자료 접근이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는 걸 압니다. 혼자만 가지고 계시고 소장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한번 공개된 자리에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하는 게 이른바 자료 특별전이죠. 자료 특별전이 우리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개인이나 또는 마을이나 기증한 자료이거나 아니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어떤 자료 특별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 달, 두 달 정도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까. 나비 특별전은 하는데 자료 특별전이 없어서 아직까지 자료에 초점 맞춘 그런 특별전은 없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 아카이빙 협력 차원에서 개인도 좋고 아니면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마을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특별전 형식으로 준비해 가지고 공개해주면 될 걸로 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저는 현장을 워낙 많이 뛰다 보니까 동사무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무슨 말이나면 제가 지금 서귀포시 대천동 역사문화지를 작업하면서 대천동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물론 도순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그 마을 문서들이 지금 제대로 우리 양승현 팀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보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습기에 노출되고 있고 장마철만 되면 종이 자루에 습기가 차고 날로 훼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보호 장치도 없고. 심지어 문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서귀포시청에서도 그런 현실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참에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좀 과학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또는 시설 그게 '서동궐'이 되었든 간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마을에 보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 의원들을 만나서 마을 자원 아카이빙 차원에서 마을 문서 보존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문서를 과학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니 '서동궐' 등 이런 것들을 제작해가지고 희망하는 마을에 좀 보급해서 마을 단위에서 마을 자원을 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면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것이 힘들면은 아예 동사무소에 자료 보관실을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마을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중 최장

네 고맙습니다. 연구자 관점에서도 말씀을 주시니까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연구 활동도 점점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60세 넘으면 그냥 연구 활동을 안 하고 대충 집에서 자료를 읽고 개인적인 취미 활동만 하고 그러는데. 요즘

은 굉장히 의료 시스템도 좋아지고 그래서 퇴직한 이후에도 또는 70세 넘어서도 이 자료를 잘 활용하고 또 자료를 갖고서 나름대로 글도 쓰고 여러 가지 기관에 부탁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사례도 있긴 한데.

아까 우리 강만익 박사님 말씀이 나오니까, 제가 퇴직하면서 버려서는 안 될 거를 자꾸 버리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중앙일보 칼럼에 한번 마침 딱 났어요. 어떤 교수님이 퇴직하는데 옛날에는 점심도 굶어가면서 그걸 샀는데, 지금 버리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나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쓰레기로 다 처분해야 되고 또 킬로그램으로 달아서 다 버리려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아까 자료 전시전 얘기를 하니까 이게 우리 제주대학교에 교수님도 뭐 한 600명밖에 안 되지만, 1년에 한 10명씩 20명씩 퇴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전공이 다르고 비슷한 전공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가면 책을 보관해 줄 게 있으면 다 해주겠다. 그 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옛날 슬라이드 필름, 옛날 받았던 사진 자료, 무슨 어디 박물관에서 만들 때 보내온 자료 중에서 한 30년 전의 거 이런 게 있거든요. 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이것을 잘 받아서 자료 전시하고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누군가가 허브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제주문화원도 그렇고 제주학연구센터도 그렇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정말 주변에 많습니다. 의외로 책 버리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고문헌 쓰레기 킬로그램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는 또 중요하게 자기가 젊었을 때 기록했던 메모지 이런 것도 끼어서 그냥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계기 또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게 아닌가. 새롭게 공부하는, 새로운 입장에서는 신 연구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 자원 아카이빙을 위해서 개별 연구자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에 대해서 논의해봤습니다.

마을 자원 아카이빙 발전을 위한 과제

정광중 좌장

마을 자원 아카이빙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 또는 개별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앞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이 중첩될 수도 있지만, 혹시 다 못한 의견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를 우리 장지희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장지희 발표자

이전 질문에 대한 답이 또 같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버려지는 기록이나 놓치고 넘어가는 기록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기록과 관련하여, 도내 기관들끼리의 업무 협약(MOU)이랄지 그런 협약을 통해서 좀 공식적으로 기록들을 같이 모으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개인 연구하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마을 활동, 마을 기록 활동을 하는 주민, 시민분들, 도민분들도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좀 같이 협업해서 학교 학생들도 사실 기록 프로젝트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학과별로 그런 것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카이브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예산 문제도 크고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인력 문제나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행정적인 절차 마련이 잘 되면 아카이빙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광중 좌장

예 감사합니다. 역시 돈이 없어서는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백종진 사무국장님께서?

백종진 토론자

우리 문화원 같은 식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공감하고 아까 지속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저도 언제나 기획하고 추진할 때에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걸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무 책임을 하지만 다른 분들의 요구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사실은 제가 완전히 강조하는 게 사람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게끔 맞춰줘야 되는 게 바로 보수 부분인데, 그러니까 성북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건이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오늘 와서 보니까 더 더욱 확신되는데. 우리는 지금 제주 마을 자원 아카이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모델을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한계가 제주에 단체가 너무 많아서 어느 한 단체에만 집중적으로 주지 못합니다. 단, 이 추진 기관이 돼 있는 제주학연구센터는 약간 예외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든지 간에 기존에 있는 단체들끼리 협력을 얘기했는데 저도 그래서 협업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업무 협약(MOU)을 우리에게도 굉장히 요구해서 많이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주는 게 지금 몇 군데 없어요.

1차적으로 하나 예를 들자면, 만약에 제주학연구센터하고 우리가 업무 협약(MOU)을 했고 같이 사업을 한다라고 가정해서 마을 자원 아카이빙 얘기를 할 때 저희는 기존에 나가고 있는 ‘마을 역사 문화 기록화 사업’의 목차가 있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전문 집필자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부분, 경제 파트 그리고 근현대 문서 파트를 작성하고 싶어도 못해요. 일단 인력이 없고 그다음 처음에는 보조금이 부족한 상황도 있고. 그리고 특히 경제 부분은 글을 쓸 분들이 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근현대 문서 마을을 저희들이 가서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읽을 수 있는, 역량

이 있는 분들이 사실 좀 없기도 하고. 근데 제주학연구센터에는 전문연구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발굴하고. 결과물을 어떻게 내면 되느냐 요즘 박스식 책 있잖아요. 한 파트는 저희가 내고 한 파트는 센터에서 작성해서 한 세트로 만들어지면 마을도 더 풍성해지고 또 매번 개인이 가서 각개전투하듯이 하는 그런 어려움보다는 단체나 기관이 가면 마을에서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그 결과물을 가지고 공통의 어떤 전시회라든지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사업을 한다 공유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구엄리를 조사하거든요. 우리 목차가 이렇게 된다. 들어와서 당신네 기관이 할 수 있는, 단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들어오십사 그러면 같이 결과물을 내는 그런 방법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중 작장

네 좋은 말씀이고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우승현 활동가님하고 김미진 선생님도 각각 한 말씀씩 해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우승현 토론자

저희는 아무래도 제주문화원이라든지 제주학연구센터 이런 기관들보다는 아무래도 대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인적 인프라가 다른 기관들보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가호호 집을 방문해서 저희 앨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면 거절하시는 경우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인적 인프라는 굉장히 풍부하게 많지만, 그에 비해서 백종진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주민이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전문성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늘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고.

그리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센터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사업들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기관들과 협력해서 저희의 장점과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결합해서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더 퀄리티가 있고 지속 가능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서귀포는 아무래도 다 털 캐진 보석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주시보다는 이런 아카이빙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든지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주학연구센터라든지, 제주문화원, 서귀포문화원 그리고 박물관 모든분들과 함께한다면 좀 더 많은 아카이빙 자료를 발굴하고 그것들을 시민분들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중 작장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진 선생님도 혹시 아카이빙 발전을 위해서 기관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해결돼야 할 것인가.

김미진 토론자

다른 선생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내용하고 좀 겹치는 것 같은데. 황이새 학예사님도 전문 영역별로 담당하는 역할을 다르게 해서 기관이 협업하는 형태를 말씀을 하셨고, 우승현 활동가님께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느 한 기관에서 모두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제주학연구센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협업해서 마을 아카이빙 네트워크 같은 거를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의된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다른 부분

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마을 자원의 아카이빙을 위한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런 게 가능하려면 약간 표준화된 관리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자료를 가지고 아카이빙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기준이. 근데 각각의 기관마다 다 다르게 하고 있다 보면 서로 간의 연계 작업이나, 후속 작업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기관, 연구자 간의 협업체가 먼저 구성이 되면 그 협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관리 지침과 같은 것을 만들고 그 양식에 맞게 아카이빙하는 절차를 밝아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광중 좌장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 말씀 중에 여러 단체끼리 네트워킹을 일단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점, 이렇게 모든 기관이 협업한다고 하는 게 지나칠 수는 있지만 필요할 때 필요한 기관끼리 협력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그 시스템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제주도에 굉장히 그런 기관이 많아요. 여기서도 박물관, 그다음에 제주문화원, 그다음에 제주학연구센터 등이 있는데 하여튼 그 관련 기관끼리 네트워킹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하나 따 올 수도 있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관련된 연구자들을 초빙해서 개인 연구자들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우리 백종진 사무국장님의 말씀을 듣다가 걱정되는 게 마을지를 쓰는데 경제 파트는 거의 없다고 쓸 사람이 없는 건지 섭외가 안 되는 건지 회원 중에 그런 분이 없는 건지. 그리고 또 중첩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항목은 딱 정해져 있는데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고 하면 다 비슷한 사람끼리 분야를 겹칠 수 있잖아요.

백종진 토론자

일단 하다 보면 팀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고, 제가 처음 팀을 구성할 때는 일단 50대로. 처음에는 60세부터 60대 중반까지 갔는데, 2018년도에 처음 구성할 때 젊은 분들로 하자 왜냐하면 다른 쪽에는 나이가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세대 교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현장 조사하려면 젊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해봤는데, 일단 구상할 때 저의 개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 파트도 있었는데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부탁해도 어렵다고 해서.

강만익 토론자

제주학연구센터에 여기 모처럼 왔으니, 실현 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토론이니까 던져봅니다. 근데 기억을 좀 하는 게, 제가 알기로 마을 자원 아카이빙의 선구자가 누구일까요? 오성찬 선생이죠. 이분이 쓴 제주의 마을 시리즈가 거의 한 50권 정도 되는데, 일단 마을 자원과 연결해서, 제주학 아카이브에 오성찬 선생님이 쓴 제주 마을 시리즈 책 소개는 됐습니까?

정광중 좌장

오성찬 선생님이 쓴 마을 시리즈.

김미진 토론자

마을 시리즈를 저희가 자료실에 있기는 한데, 이것을 아카이빙하기 위해서는 저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매품으로 나왔던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디지털로 아카이빙하기 위해서 오성찬 선생님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만익 토론자

그런 절차가 물론 남아 있겠지만,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매우 높아서 1970-80년대, 1990년대에 제주 마을의 어떤 원형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

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유족 측하고 논의해주셔가지고 《제주의 마을 시리즈》를 공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걸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조례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어요. 제주특별자치도 기록물 관리 조례를 봤거든요. 그건 공공기록물에 대한 내용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마을 자원 아카이빙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이 마을 자원 아카이빙 구축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또는 어떤 경제적으로 지원받고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주 마을 자원 아카이빙 구축 조례’를 좀 제안하는 것은 어떨런지 우리 제주학연구센터장님 그 도의원 만나서 얘기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광중 작장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거는 가능할 겁니다. 당장은 안 되지만 분명히 필요성이 있으면 목적 의식이 분명하면 더 가능성 높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강만익 박사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오성찬 선생님 마을 시리즈 책 그것도 유족들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저도 관련해서 우리 학구지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만들었던 1980년대 학구지. 우당도서관이나 제주대학교도서관 같은 데 일부 있긴 있어요. 학교는 제약이 많아서 오히려 제주학연구센터에 전화해서 디지털 탑재되어 있으면 PDF 파일로 다운 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저는 마을을 연구할 때 학구지가 있으면 좋겠다. 학구지가 2014년도에 전체가 한 번 나왔고 그전에 1980년대 중반, 학교마다 1983년, 1984년, 1985년까지 몇 년에 걸쳐서 있는데, 이게 의외로 그 당시 제주에 학교가 있는 마을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예요. 근데 그 옛날 식이 됩니까? 프린트도 아니고 가리방(봉조) 어떤 학교는 가리방본(봉조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사라져가는 자료를 좀 더 부활시키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깨끗하게 복사해서 PDF 파일을 만들면 굉장히 마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과거와 현재를 연결

할 때에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들이,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젊은 연구자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제 활용할 수 있고, 또 일부는 우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에서 나온 마을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현대 것들은 234개 마을이 있는데, 제주도가 계속 쟁탈전으로 마을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오는 대로 일단 확보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한두 권은 다 갖고 있을지 몰라도 전체를 갖고 소장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책도 옆에 보면 아까도 천 페이지가 넘는 것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2개 마을 혹은 10개 마을 괜찮은데, 50개가 돼 가면 공간 부족해서도 못하고. 저도 몇 권 있는 거 있으면 전부 제주학연구센터에 보낼 거고요. 또 엇그저께 보니까 다른 마을은 이미 개정판이 나온 마을도 있어요. 동쪽 성산읍 수산리에는 1994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개정증보판을 했더라고 이런 마을도 있어요. 참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을 자원과 관련해서 이 마을지는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록 자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회자가 너무 말이 많았습니다.

김미진 토론자

그전에 강만익 선생님 말씀하셨던 오성찬 선생님 마을지 건은 황이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시지 않나요?

정광중 작장

관련해서 한 번 좀 한 말씀주시면.

황이새 토론자

오성찬 선생님은 일단 저희 박물관과 깊은 인연이 있으셔가지고. 1대 민속연구관으로 재직하시면서 작년에 40주년 박물관의 생산물들을 아카이빙 해서 그걸 정리하는 작업했을 때 남기신 민속자료와 관련된 사진들도 많이 있고 굉장히

성실하게 박물관 개관을 준비하셨던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자료도 있지만 또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1997년도에 오성찬 선생님이 마을 조사하시면서 채록하신 녹음 테이프 521점을 박물관에 기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원 소스고 근데 누가 참여했는지 어디인지 정확하게 사실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 제주 마을지와 대조해서 본다면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자료인데요. 그 테이프를 박물관에서 디지털화는 했습니다.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자료 중에 4·3사건과 관련된 증언이 많아서 이번에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같이 포함되기도 했었고요, 90여 건이.

자료가 귀한데 이 연구가 사실 미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성을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연구자분들에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희조차 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질도 안 좋고 참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음식 찹찹대서 먹는 소리도 있고 술자리도 있었고 아주 좋은 음성도 있지만. 그래서 간혹 이 테이프 자료의 정체를 아시는 분들이 요청하시는데, 상당히 한편으로는 또 좀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저희가 마구 공개했다가 혹시나 4·3사건 등 대화라는 게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가 보면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521개 중에 100건은 저희가 해제는 했습니다. 이제 풀어서 썼는데요. 나머지 400여 건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김미진 박사님께서도 참여해 주신 적이 있지만 해제하는 일이 굉장히 쉽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고 있고.

마을 자원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된다면 이런 부분도 얘기해 보면서. 예를 들어 서귀포시, 제주시에서 어떤 마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그래도 어느 지역은 쓰여 있습니다. 어느 서귀포시 무슨 동 예를 들어. 그럼 그때 조사하실 때 한번 쪽 풀어보는 걸로 진행하면 한번에 이게 아주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게 함부로 저희가 배포하기는 아직은 어려워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

면 박물관에 오셔서 한번 청취는 가능합니다.

정광중 좌장

참고로 오성찬 선생님이 갖고 있던 유물이랄까 여러 가지 소품 소장본 이런 것들은 계실 때 스크랩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자료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어쨌든 지금 마을 자원 아카이빙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해결 과제 등을 토론해왔는데 상당히 할 얘기는 많고, 또 어찌다 보니까 시간은 지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마을 자원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 좀 마쳐야 될 듯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마을 자원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한 토론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병 센터장

제가 마무리 강평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마을 생태 자원을 조사하면서, 특히 박물관에 있을 때 제가 마을에 있는 하천 계곡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언론사하고 같이 있었는데 언론사에서 할 때는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또 밥도 사주고 먼저 오라고 하고. 박물관에서 가면 간혹 제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관에서 하니까 협조해 달라고 해서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아까 우리 강만익 선생님이 지적한 것처럼 보고서만 발간한 것이 아니고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 저희들이 성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전시 특별 기획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문화원이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성원이 좋았고. 또 그걸 보면 옆 마을에서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몇 가지가, 마을지는 저희가 통합 검색도 하지만 저희 아카이빙 자료 중에 특화된 주제별로 해녀, 갈옷, 무형 유산을 테마 아카이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번째로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마을 자원입니다. 이 마을 자원인데, 지금은 제주문화원에서 하는 전자책은 제주문화원 홈페이지 링크로 서비스해 드리고 있고, 민속자연사박물관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책자 파일을 전달받아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김미진 박사님하고 권미소 박사님이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어 감수. 제주학연구센터가 내년에 설립 15주년이다 보니까 특히 제주어가 특화돼 가지고 다른 분한테도 감수받으면 될 것을 꼭 제주학연구센터에 감수받아야 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두 분의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을지라든가 마을 자원에 대한 자료를 위해서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에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김미진 박사님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어대사전 집필과 제주어 웹사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오픈되면 제주어 아카이빙이라든가 홈페이지 접속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까지 검색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다시 마을지라든가 우리 마을 자원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성북문화원에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라는 조례가 있었던 것처럼, 강만익 박사님이 아까 마을 아카이빙 조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자원 범위가 커서 잘 설득해서 마을지 발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활용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각 기관의 성격에 맞게만 하다 보면 좀 충돌될 것 같아서 협업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발견된 파일 같은 경우도 PDF 파일이 없으면 고도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제주학연구센터가 중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을 자원을 왜 하는지, 누가 하는지, 또 언제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김미진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마을 자원은 결국 사람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증언과 구술해줄 분이 많

지 않습니다. 그런 시급성 때문에 아마 각 기관에서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막상 성과물에 대해서 협력하자니 아까워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세웁니다. 집필자가 허락하지 않았든가 또 마을회에서 협조하지 않았든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주학연구센터 연구원님들도 세시풍속, 노동요, 해녀 또 용천수 현장 조사 가면 요즘은 그나마 약간 사례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경험적인 사례가 참 많습니다.

또 마을 자원을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 가족이나 개인 것보다, 마을 사람들이 뭉쳐 있는, 제주 사람은 제주의 공동체, 정체성은 그 마을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경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돌담, 용천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구누구네 아방 어명네가 소장해 있다고 소문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잘 협력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을 자원의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이 그런 고민 속에 출발했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한, 그런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 어떨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백종진 국장님처럼 단순한 업무 협약(MOU)이 아니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제주문화원이라든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성북문화원, 공주학연구원 등 또는 도내 기관, 단체들과 잘 협업해서 오늘의 네트워크 포럼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경 사회자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정광중 교수님과 토론자분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토론 시간에 나눠주신 말씀들 잘 새겨서 제주학연구센터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데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아카이브 전략 방안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교류하는 기관들이 함께 과제 발굴을 한다거나 예산 규모에 따라서 과제 선정을 좀 나누어서 하는 것

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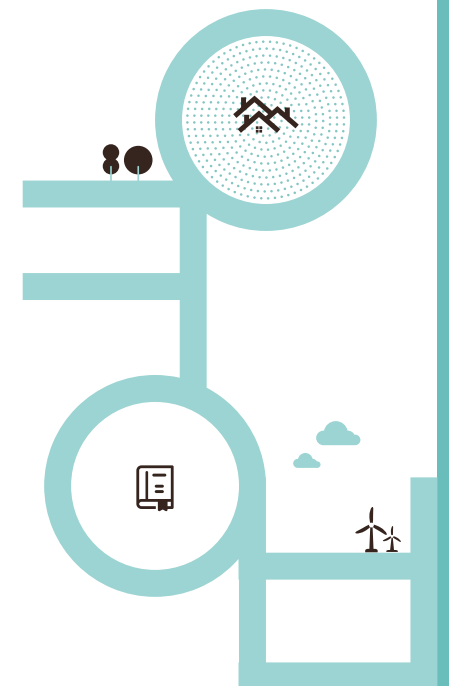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협력 방안과 논의하는 일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2025년도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제주 마을 자원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

III. 기타 자료

제주 마을 자원
아카이빙 Archiving
전략과 협력 방안

1. 키워드로 보는 포럼



도외 사례 발표



성북문화원 성북마을 아카이브는 ‘주민 참여형 기록 체계’, ‘지속적인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콘텐츠 및 전시 등 활용 방안 확대’, ‘교육 기반 역량 강화’, ‘주민 참여 및 협력 구조’가 중심이 된 아카이빙 사례이다.

공주학연구원 공주학아카이브는 ‘공주 읍면 지역 기초 자료 수집’, ‘주민 참여 확대’, ‘기증·기탁 문화 정착’, ‘수장고 등 물리적 환경이 조성’된 아카이빙 사례다.

이러한 도외 지역 사례를 종합하여 볼 때, 향후 제주형 마을 자원 아카이빙 모델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과 구축’, ‘콘텐츠화’, ‘민·관협력’ 등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을 자원 개념



마을 자원은 마을의 역사·문화·공동체 활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주민의 기억, 공간, 자연환경, 기록물 등을 말한다. 이러한 마을 자원에 대한 의견에서는 ‘마을 자원’, ‘아카이빙’, ‘주민/공동체/활동가’, ‘기록’, ‘조사/프로젝트 활동’, ‘생활·역사 문화, 문화 유산’, ‘구술’, ‘생활 자원·공동 자원’ 등 주요 핵심어로 도출되었다.

마을 자원 및 기록 주체 변화상



마을 자원 및 기록 주체의 변화상에 대한 논의에서, 최근 아카이빙의 자원 선정 기준과 기록 생산 주체의 확장성을 살펴보았다. 마을 자원의 범주도 생활사·생활 자원 중심으로, 기록 주체는 전문가 중심에서 주민 또는 시민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에서 핵심어는 ‘아카이빙 변화’, ‘생활사·생활 자원’, ‘주민·시민 기록단·마을 활동가’ 등을 핵심어로 꼽았다.

■ 마을 자원 기록 방법



마을 자원 기록 방법에서 ‘디지털 자원의 수집·기록·보존’, ‘초상권·저작권 등 권리’, ‘공개 범위 설정’, ‘동의 기반의 콘텐츠 활용’, ‘아카이빙 시스템 및 백업 기반 구축’이 핵심어로 도출되었다. 특히 아날로그 자료가 디지털 기록으로 변화할 때 초상권 및 저작권 동의 등 권리 관리의 명확화·명시와 공개 범위 설정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향후 마을 자원 아카이빙 시 동의에 기반한 권리 관리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함이 논제로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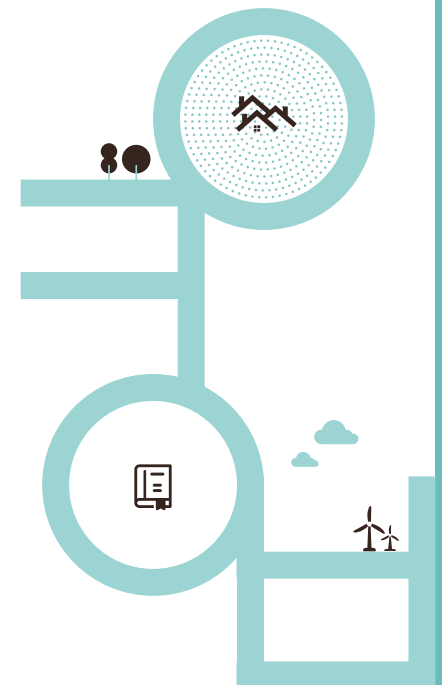
제주형 아카이빙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



마을 자원 아카이빙을 위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논의에서 ‘마을 자원’, ‘자료 관리 디지털화’, ‘정책’, ‘협업’ 등이 핵심어로 도출되었다. 또 ‘기관 간 협력 구조 마련’, ‘아카이빙 체계의 표준화’, ‘지속 가능한 예산 및 인력 운영’, ‘조례 또는 정책 기반 마련’ 등도 제시하였다.

제주 마을 자원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

2. 홍보 자료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 내달 4일 열려



▲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 포스터
[제주학연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새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사, 김미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이 2부에서 토론한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변형되거나 훼손 위험이 있는 민간 기록물의 데이터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 마을 자원의 체계적인 기록화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김완병 제주학연구센터장은 “제주도 내 공공기관, 학계, 민간 등 다양한 기록 주체들이 추진 중인 기록화 활동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제주 지역에 적합한 아카이빙 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11월 4일 오션스위치 제주호텔에서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 제주 마을 자원의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정지희 성북마을아카이브팀장과 이아름 국립공주대 공중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이 각각 서울시 성북구와 충남 공주 지역의 아카이브 사례를 발표한다.

강만익 제주중앙여고 교사,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양승현 제주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팀장, 우승현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활동가, 황이

제주 마을 자원 아카이빙 전략 모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완병)는 오는 4일 오션스위치 제주호텔에서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 제주 마을 자원의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제주지역 마을의 다양한 문화·역사·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공유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전략을 논의하고, 타 지역 마을의 디지털 아카이빙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제주형 아카이브 모델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완병 센터장은 “마을 자원의 체계적인 기록화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주에 적합한 아카이빙 모델을 마련하고, 협업 기반의 진보된 기록 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 11. 2. 제주매일(우중희 기자)

제주학연구센터, 마을 아카이빙 미래 모색 포럼 개최

성북구·공주시 사례 발표, 현장 중심 토론 이어질 예정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김완병)는 오는 4일 오후 1시 30분, 제주시 탐동해안로 오션스위츠 제주호텔 2층 체리홀에서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 제주 마을 자원의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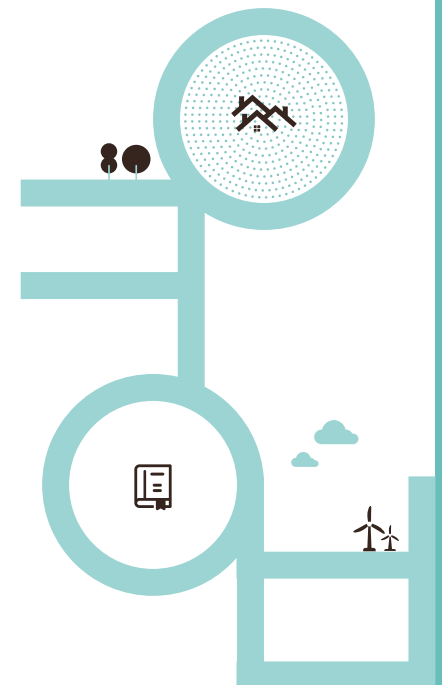
이번 포럼은 각 마을의 문화, 역사,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빙 전략을 논의한다. 또한 타지역 아카이빙 사례를 통한 제주형 모델 발전 방향 모색이 목적이다.

행사는 1부 '도외지역 사례 발표'와 2부 '전문가 토론'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강지희 성북마을아카이브 팀장, 이아름 국립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서울 성북구와 충남 공주시 사례를 소개한다.

2부는 정광중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진다. 문의=064-900-1819.



3. 행사 사진



● 등록



● 영상 상영



● 개회식



● 인사말 _ 김완병(제주학연구센터장)



● 기념 촬영



● 발표 | 성북마을아카이브 _ 장지희(성북문화원 성북마을아카이브팀장)



● 발표 | 공주학아카이브 _ 이아름(공주학연구원 전문연구원)



● 종합 토론



● 좌장 _ 정광중(제주대학교 명예교수)



● 토론 _ 강만익(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 토론 _ 백종진(제주문화원 사무국장)



● 토론 _ 양승현(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팀장)



● 토론 _ 우승현(서귀포시 중앙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활동가)



● 토론 _ 황이새(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사)



● 토론 _ 김미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현장 모습



2025 제주학 아카이브 네트워크 포럼 행사 기록집

제주 마을 자원 아카이빙

전략과 협력 방안

발행인 김완병
발행처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전화 064-726-5623 누리집 www.jst.re.kr
발행일 2025년 12월
인쇄일 2025년 12월

기획·진행 현혜림(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양재연(제주학연구센터 연구보조원)

디자인·인쇄 디자인그린

비매품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